

# 성도의 벗 5

1974

해롤드 비 리 대관장  
1899~1973



## 영감의 메시지

**어**머니의 사랑을 어느 누가 측량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라는 숭고한 사명을 어느 누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으로 어머니는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과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솔로몬은 “너 낳은 아비에게 칭송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찌니라” (잠 23 : 22)고 기록했습니다.

잊혀지는 어머니를 “기억되는 어머니”로 만들 수 없겠습니까?

인간은 어머니를 기억할 때 모든 악에서 돌이키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어머니가 열심히 가르치신 진리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고의 목표는 우리 현세대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경 시대에 미대륙에서 힐라멘이라 하는 용감하고, 선하고, 고결한 지도자가 2000명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장에 진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 알고 있습니다. 힐라멘은 이들 젊은이들의 행적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용기를 보지 못하였노라... 저들은 또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서시게 하시지 않으시리니 우리를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아들들은 싸워본 경험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

을 모친에게서 배운 자였더라. 저들이 모친에게서 들은 배운 말을 내게 되풀이하며 말하기를 모친들께서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더라.” (엘 56 : 46-48) 싸움이 끝난 후 힐라멘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보라 단 한 사람도 맞아 땅에 쓰러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충천하였으니, 참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힘을 입은 듯 싸웠으며, 그렇게 기적적인 힘으로 싸운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못하였노라 ...” (엘 56 : 56)

기적적인 힘과 놀라운 힘 곧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합쳐져서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어머니를 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잊고 어머니를 기억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각자 마음에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 두 성스러운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머니는 창조, 사랑, 희생, 봉사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마음과 행동으로 어머니와 하나님을 공경하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모든 마음과 행동으로 어머니와 하나님을 공경하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모두 마음과 행동으로 어머니와 하나님을 공경하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 벚

대판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베프드 펜슨  
마크 이 피터슨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스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몽기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4년 5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10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서울중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 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전수

## 순서

영감의 메시지		토마스 에스 몬스
올바른 해답	2	엔 엘돈 태너
이 반	6	안나 시맨
질의 응답	8	
생명수의 샘	10	딘 자맨
팔리 피 프랫	14	
자녀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19	
느낌을 주십시오.		달라 라슨 행스
아론의 새모자	21	캐롤린 글뢰크너
오순절	25	
창조적인 친구	26	
심심풀이	28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29	오 레슬리 스톤
순 종	32	엔 엘돈 태너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37	마리온 지 롬니
기본적인 임무 : 신권	39	로버트 엘 심슨
지극히 작은자 "버키 스니드"	42	래리 케이 랭그로이스
내외소식	45	
편집자란	49	

### 고문 위원회

교내 연락 책임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번역 및 배부 책임자, 존 이 카

교회 잡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육자로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정가 1권 10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1974년 5월호 성도의 벚 제10권 제5호

# 올바른 해답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 : 39



1974년 5월호

대관장단 메시지

대관장단 제1보좌

엔 엘돈 태너

**현**대의 젊은이와 많은 성인들은 온 인류가 갈망하는 평화, 성공, 행복을 발견하고 생의 지침을 얻기 위하여 올바른 해답을 열심히 찾으려 하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문은 오래 전부터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이곳에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그것입니다.

이 의문은 개인이 그룹에 속하거나, 또는 대학을 들어 가면서 새로운 문제와 의심이 일어나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지닌 젊은이들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들을 가르치도록 고용된 교수에게 찾아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생활의 영적인 면을 생각하기에 앞서 물질적인 면만을 생각하는 데 몰두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증명될 수 없으며 시각이나 촉각으로 알 수 없고 경험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만 과학적인 면으로만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릇된 지성인들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인간이 지상에 온 목적, 인간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 가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그들의 인격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 지성인들의 대부분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전혀 배우지 못했으며, 또한 배우려 들지도 않는다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그들 자신이 영적인 것에 흥미가 없으므로 그들은 그릇된 지식을 전해 주며 때때로 영성을 지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능한 한 모든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과학의 한 분야를 전공한 과학자는 다른 분야의 권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지식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종교의 권위자인 양 자처하고, 종교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합리화하여 복음이란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을 조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를 불러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 18:1-6)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중 한 사람의 신앙이라도 잃게 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교수가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교수는 그들이 가르치려는 모든 주제에 관한 대답을 경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인간에게 모든 진리를 알려 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신의 권세”(모로 10:5)로 “빛과 지식”(엡 92:3)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교성 49:19)가 역사함에 따라 그들의 지식은 많아질 것이요,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크게 발전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경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교성 93:36)이며, 인간이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회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시면 찾을 것이며,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마 7:7)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로 주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과학에 관하여 답을 얻고자 할 때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 가십시오. 그러나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왔는

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한다면 종교 분야의 권위자에게 찾아 가고 경전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인간에게 모든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신의 권세로 빛과 지식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인간이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 복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의 해결과 의문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모든 힘의 근원적인 원동력입니다. 최근에 모친과 사별한 유능한 박사 한 사람은 그의 제자들에게 신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은 언젠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전혀 비합리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어느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위안과 위로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비과학적이라 여기고 도의 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분석하면 결국은 종교가 과학적인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체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전을 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과학자는 모든 과학적인 원리와 학문적인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다른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마음의 평화를 크게 더해 주는 인생의 다른 중요한

면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면이 부가됨으로써 그들의 발전과 성공과 행복은 한층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에 대하여 말만 하여도 코웃음을 치던 사람이 위협을 받아 죽게 되었다가 간신히 구출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는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무의식적으로 기도드리는 예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경전은 우리 생의 지침이요 청사진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 가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증명하며”(교성 124 : 113) 지식을 얻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죽을 몸으로 이 지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과 그 해석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왕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재로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단 2 : 47)



구상에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줍니다.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약속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조소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주께서 가지신 권능,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과학자는 과학이 모든 것의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만물을 조직하는 근원이 되는 예지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점점 많은 수의 과학자들은 종교와 과학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만을 토대로 하여, 또는 예언이 완전하게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일까요?

한 가지 실제적인 예는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표적을 말하는 물몬경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을 예언자들은 이 위대한 사건을 예시하는 표적과 상태에 대하여 말해 왔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언의 말이 이루어질 시기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날을 임의로 정하여 “그날에 이르도록 선지자 사무엘이 전한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면”(니삼 1 : 9) 믿는 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니파이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었으며” 그날 밤 표적이 주어졌고 예언대로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땅에 쓰러졌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오시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예는 세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들의 경고에 따라 준비하지 않고 조롱하였던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예언자, 개인,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구세주의 음성을 듣거나 그를 직접 보았거나, 또는 더 기이한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다고 기록된 경전에 대한 간증을 아무도 논박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실체와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자녀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랑에 대한 간증을 가장 강력하고 생생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느브갓네살 왕은 자기가 꾸는 꿈을 해몽하기 위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를 모두 불렀으나 그들중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여, 노한 느브갓네살 왕은 그들 모두를 죽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과 해석을 보여 주셨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은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경전은 우리 생의 지침이요 청사진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시 돌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증명하며 지식을 얻기 위하여 육체를 얻고 죽을 몸으로 이 지구상에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다니엘 2:20-22)

우리에게는 경전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고결하고 훌륭한 성품의 신앙이 깊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예언자를 가지고 있어, 그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듣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신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성 68:4)

여러분은 모두 인생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좋은 해답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전이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 계시에 나타난 올바른 진리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최고도의 학문을 닦고 과학을 아는 학생이라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답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어찌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기독교적인 윤리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의심하겠으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수가 그들이 가르치

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의심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스스로 경전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도 경전을 읽게 하고 그들이 연구하며 올바른 해답을 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가면 부딪히게 될 문제와 반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무장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성 93:40)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은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에만 주의를 쏟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도 큰 관심을 둘 것이며 그리하여 신앙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 회의, 불신은 의의 모반자, 적의 무기이며 발전의 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경전을 읽고 아는 것만은 충분치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데 충분한 원동력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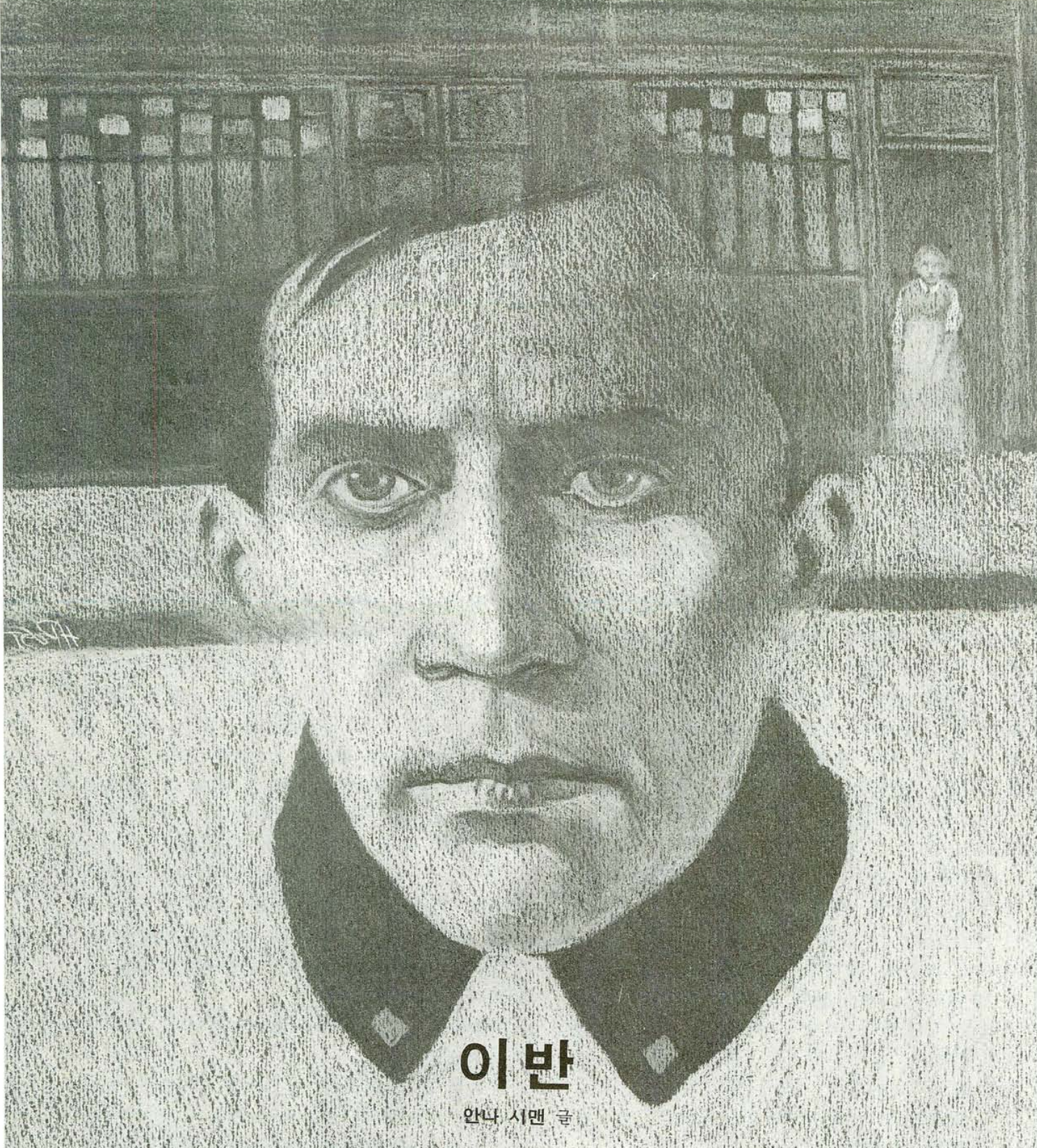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18-21)

우리가 경전을 상고하고 그곳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아 나감에 따라 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우리를 위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圖



# 이반

안나 시먼 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직후, 나는 체코의 보헤미아 마을에 살고 있었다. 남편이 전사했기 때문에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전쟁 직후라 청모가 일자리를 구하기는 매우 힘이 들었다. 겨우 찾은 일자리는 두 명의 다른 여인과 함께 조그만 작업소에서 소련군을 위한 세탁소를 수신하는 것이었다.

남자들만 일하는 줄 큰 세탁소가 우리의 조그만 방과 접해 있었다.

길 아래에는 소련 장교 두 명과 사병 여러 명이 운영하는 소련군을 위한 세탁소가 있었다. 이 사병들 중에 “말썽꾸러기 이반”이라 불리는 젊은 청년이 있었다. 약 20세 가량 된 이 청년은 모덕 권태이란 권태 없는 듯 싶었으며



항상 취해 있었다. 그는 상관으로부터 항상 벌을 받을 뿐 아니라, 때때로 화가 난 동료들도 그를 때려 눕히기가 일쑤였다.

어느 날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하게 비틀거리며 우리가 일하는 작업소로 들어 왔다. 나는 그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움켜쥐고는 때리고 층계 밑으로 떠밀어 냈다. 나는 분노와 동정으로 몸을 떨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행한 청년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몇 가지 일을 마치기 위하여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약 10시 즈음에 홀을 지나 오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곧 커다란 노크 소리가 났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는 일이란 좀체로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있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누구요?” 나는 소련말로 물었다. 밖에서 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가 이반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을 열어 보니 술에 만취된 이반이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친절하게 나는 그를 안으로 들어 오게 하고 의자를 내 주었다.

“아주머니는 좋은 분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를 알지도 못할텐데 어떻게 말하지?”

“사람들이 나를 때릴 때 아주머니의 눈을 보았거든요. 그것이면 충분하죠... 우리 어머니도 친절한 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나는 이반이 감정에 예민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동료들이 그에게 심하게 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그는 알아 챈던 것이었다. 그는 병을 앓고 있었으며 내가 그를 도와 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의자를 그의 옆으로 당겨 앉으면서 물었다. “이반,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

그의 대답은 신음 뿐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어머니처럼 물었다. “이반, 내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내가 도와 줄테니, 큰 슬픔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애.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자 “말썹꾸러기 이반”은 얼굴을 책상에 묻고 울었다. 나도 그를 위해 얼마 동안 울었다. 그리고 난 후 나는 조용히 그에게 그의 근심을 함께 나누자고 말했다.

이반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반은 소련의 어부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지방을 점령했던 적군은 그 당시 15세였던 이반에게 그의 집 앞에서 아버지와 두 형이 참사당하는 것을 강제로 목격하게 하였다. 어머니는 그가 생각하기에 성스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하였던 것 같다고 이반은 말했다. 이반은 어머니가 매일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가 살아 있는지 죽은지를 알 수 없었다. 지난 6개월간 계속 이반이 이동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이 청년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느낌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소련 어느 곳에서인가 신앙이 깊은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반에게 내가 그의 친구이며 그를 돕고 싶다고 차근 차근히 이야기했다. 그가 좀 진정되자, 나는 온 몸이 마비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던 한 이웃에 대하여 들려 주었다. 나는 그에게 술을 끊으라고 격려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병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실히 그의 어머니도 그를 만나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그가 한 말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기도할 줄 아는지를 물었다. 그는 자신을 갖지 못했으나,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작업소를 나와, 그를 숙소에 바래다 주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도 이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제과점의 한 장교가 작업소에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청했다. 이반이라 하는 그의 사병이 내가 그에게 중환병에 걸렸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후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장교에게 이반을 도와 주고 싶었기 때문에 병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나의 의도를 이해한 장교는 나에게 함께 제과점에 가서 이반에게 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달라고 청했다. 그길로 곧장 가 보니 장교가 말한 대로 이반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 목소리를 듣자 이반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의 얼굴은 여위고 창백했다. 내가 한 말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이야기하려 했던 것은 그가 병에 걸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술을 끊지 않으면 병에 걸릴 것이라고 말하려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반은 약간 놀라는 것 같았으나 약간 명랑해졌다. 그러나 확실히 열은 있었다. 나는 그의 맥을 짚어 보고는 그에게 정상이라고 말해 주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나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더니 그는 그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는 그곳을 나왔다.

이틀 후에 술에 취하지 않고 말썹하고 상냥한 이반은 작업소로 나를 찾아 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드릴 옷을 바느질해 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나는 기쁘게 해 주었고 그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소포를 보낸 것이었다. 이반은 열심히 일했으며, 그후로는 그에 대한 불평을 듣지 못하였다. 두 달후 그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소련으로 돌아 갔다. 나는 그후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떠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시대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나에게 한 청년이 뛰어 와 나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를 알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모습은 새로왔고 건강해 보였다. 술에 만취되어 지냈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1946년 초에 소련군은 체코를 떠났다. 그후로 나는 결코 이반을 보지도 그에 대한 소식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조그만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간증드린다. ㉠

# 질의 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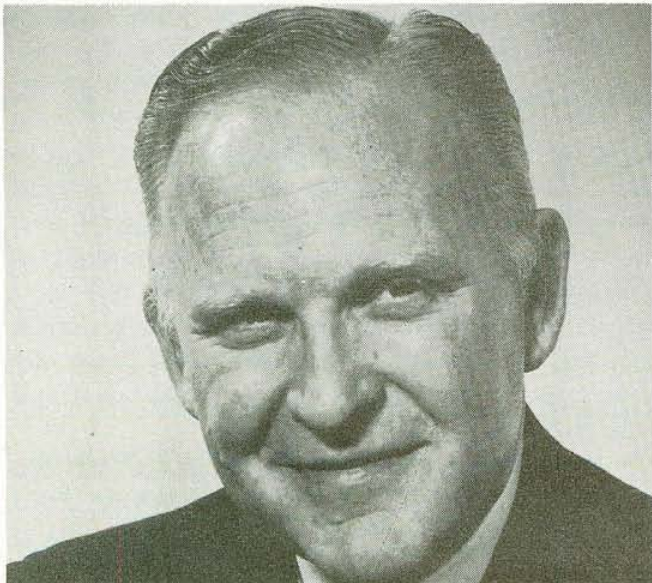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일요일에 행하는 직업 스포츠는 어떤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평일과 달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경건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을 평일과 “다른 날”로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타당하며 우리 생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영체와 그것을 담고 있는 육체로 되어 있는 이원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개성과 동기와 이해를 규정 짓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지어 주는 매체입니다. 그러나 영이나 육체, 양면은 모두 영양과 교화를 필요로 하며, 음식 조절은 약간 다른 문제일지라도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음식 뿐만 아니라 적당한 일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게임이나 스포츠와 같은 체육 활동은 이상적인 신체를 단련시키는 데 도움을 주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청년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체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육은 신체의 요구를 충



족시켜 주는 동시에 재미있습니다. 체육은 평일에는 매우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그 음식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은 보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특별히 성별된 날입니다. 교회에 참석하여 성찬을 들면서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 보고, 복음과 생의 지표를 향한 우리의 생각을 이날에 검토해 봄으로써 생의 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것을 가져다 주는 음식이며, 이러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날이 일요일입니다.

핵심이 되는 단어는 균형입니다. 우리의 영체와 육체가 각기 요구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날에 올바른 식사를 취하십시오.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그들은 보다 가치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은 내적인 평화와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을 보여 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명은 우리의 참 요구를 아시고 우리의 영원한 발전과 행복을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더블류 제이 엘드리지  
지역 대표  
프로미스드 벨리 극장 지배인



1974년 5 월호

“저는 십대의 세 자녀를 가진 부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의상의 표준 문제가 항상 문제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인의 외모에 대하여 그토록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를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십**대라면 누구나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외모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아마 이 십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부모들은 그들의 의복이나 머리 모양 등이 어떤 표준에 맞아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의복과 머리 손질은 단지 추위를 막고 단정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 이외에 더 큰 목적을 충족시키지는 않았읍니다. 옛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같은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귀족이 생기면서 의복은 계급과 부와 직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의상이 곧 그가 속해야 할 사회를 알려 주게 된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하여 의상을 입는 오늘날에도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의복은 보는 이에게 우리 자신을 말하여 줍니다. 사회는 어떤 종류의 의상을 볼 때, 경찰관이나 신부나 로크 음악가 등과 같이 의복으로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 사회 그룹들을 연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룹과 동일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상을 입어서는 안됩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선교사와 같이 보이고 싶으면 선교사다운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의복과 머리 손질은 대화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다른 어떤 그룹과는 달리 교회의 그룹으로 인정되기를 바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의복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면, 이는 또한 자신에게도 자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의복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선택한 의복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까지 합니다. 의복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쉬운 예로, 여러분은 결혼 피로연에 갈 때 입을 옷을 입고 소풍을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복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소풍을 간다면 여러분은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데 심하게 제약

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소년단복을 입었을 때의 소년의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소년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명예롭게 생각하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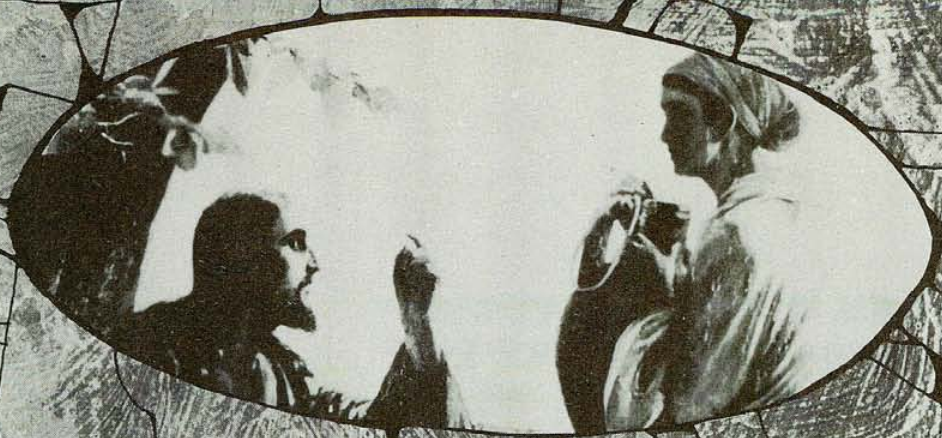
섭이사도 정원회 보조인 스티얼링 더블류 실은 그의 저서, 탁월함을 위한 추구(북크래프트사, 1967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추함은 신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일단 그 추함이 그 사람의 생의 바탕을 이루게 되면 곧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흔히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의복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복의 값이나 최신 유행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고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

리타 엘 백민  
브리감 영 대학  
의상학과 조교수





“여자가 그대 주어 받기음 받듯도 않고 이  
우물인 진운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  
냐”(요한복음 4:11)

10/24



딘 자맨 글  
리차드 헐 그림

1974년 5 월호

**“경**전을 다시 한 번 읽으라고요? 지난 이년 동안 이미 다 읽었습니다. 표준 경전 4권을 벌써 4번씩 읽었습니다!”

내가 신학원의 학생들에게 한 달 동안 매일 경전을 20분씩 읽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였는데 한 귀환 선교사가 이렇게 내게 써 보냈습니다.

나는 이 과제를 어느 정도는 호기심에서 학생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젊은이들도 과거 고대의 예언자들이 경전에서 발견했던 위대한 힘을 스스로 경전에서 발견하게 될 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나의 가슴이 이를 깊게 사모함이라. 나의 후손들이 이를 배우게 하며, 또한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자 내가 이를 기록하노라”(니이 4:15) 또한 그는 “...나의 말이 저들에게 선한 것을 권고 함이며...예수를 전하여 저들로 예수를 믿게 하며, 끝까지 견디어 영생을 얻도록 권고”(니이 33:4) 하였으므로 그가 기록한 말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전하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말은 진실하며 “이 말씀은 만민에게 선행을 가르치느니라”(니이 33:10) 고 말했습니다.

시렘이라 하는 자를 만난 뒤 야콥은 니파이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다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니 저들이 경전을 익히며 다시는 잔악한 자의 말을 좇지 아니하였고”(야 7:23) 라고 말했습니다.

엘마는 엠몬아이하 백성들(엘 14:

23)에게 미친 그의 말씀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 회개하여 복음의 참 뜻을 알아 내려 하였느니라”(엘 14:1)

개심한 모사이야의 네 아들은 선교 사업을 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엘 17:2) 졌다.

시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느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노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노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굽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노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시편 119:97-104)

나는 이 성구를 인용하면서 신학원 학생들에게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경전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성실히, 깊이 생각하고, 기뻐하며 명상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을 때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진대, 새로운 영감을 받을 것이며 보다 의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자는 약속하였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상고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경전 자체에 대하여 깊이 명상

하는 것이요, 다른 한 가지는 읽은 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물론경 독자들에게 읽은 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고 말한 모로나이의 권고는 첫번째 상고에 속합니다. (모로 10:3) 또한 니파이는 그의 아버지께서 보신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영에 이끌렸습니다. (니일 11:1)

요한복음 5장 29절을 열심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던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의 눈은 열렸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이해의 눈을 만드시니, 우리의 눈이 열리는 지라...”(교성 76:19; 11-18절 참조)

두 번째 종류의 상고로 요셉은 성스러운 숲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야고보서 1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 속에 힘있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강한 힘이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았나이다.

“마침내 나는 암흑과 혼돈 속에 머무르든가 야고보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든가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에도달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12-13)

이같은 깊은 명상은 우리에게서 암흑을 없애 주고 빛을 던져 줍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또는 “이것으로부터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등을 질문하여야 합니다.

신학원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 경전을 읽는다면 니파이나 모로나이가 발견했던 영감과 똑같은 영감을 그들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물론경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물론경을 읽으라고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배리온 지 립니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어느 책을 읽는 것보다 물몬경을 읽으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에서 뿐 아니라 나의 실제 체험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전 읽기를 평가하기 위하여 나는 학생 모두에게 월말에 마음 속에 일어나는 반응을 쓰도록 과제를 주었습니다.

반응은 나의 경전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해 주었습니다. 과제에 대하여 불평했던 그 귀환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기이한 경험을 다시 하였습니다. 나는 예언자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복음을 이해하고 배우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과거 어느 때 보다는 지난 몇 주처럼 복음이 나의 생활을 지배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신앙과 간증의 힘은 매일 달라지며, 우리는 매일 그것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한결같이 열의에 찬 것이었습니다. 경전 연구는 고대 예언자에게 그랬던 것과 같이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경전 연구는 그들에게 기도를 드리도록 동기를 주었고, 영적인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향상시켰으며, 창조력을 길러 주었고 자제력을 심어 주었으며, 생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학생의 반응은 좀더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경전 읽기는 나의 의식 구조에 쉽사리 합리화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영향을 주었습니다...특히 약

혼을 한 이후로 나는 쉽게 몇 가지를 합리화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선악의 구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주는 것이 오직 경전뿐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경전이 크게 저에게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몇몇 학생들은 그들이 새로이 얻은 영성에 대하여 썼습니다. 한 법학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의 나의 생활에서부터 변화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전을 가까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의 영에 부정할 수 없는 강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나는 매일 경전을 읽는 것이 일생을 통하여 행해야 할 과업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학생 클럽에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한 여학생은 경전을 읽음으로써 영성을 지니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30일간 경전을 읽기로 약속을 한다면 30일 동안만 경전을 읽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저는 일생 동안 경전을 읽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동안 물몬경을 세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영성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경전에 전혀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도 경전에서 기쁨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물몬경을 읽으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무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전에 흥미를 갖지 못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저는 저 자신을 강요하면서까지 읽어왔습니다. 올해는 나는 경전을 읽는 일분일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경전을 읽고 있으며, 어떠한 일도 경전 읽는 시간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전에 생각하기로는 매일 아침 경전을 읽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또 한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을 때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귀를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물몬경을 완전히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두세 번 읽어 보려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니파이에서도 제대로 끝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경전에 대한 나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내가 전에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이제는 간증이 경전 지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저의 개인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든지, 또는 학교에서 경전을 읽을 때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을 느끼며, 좀더 선한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까지도 변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노스서까지 읽었습니다.”

학생들은 경전이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며 그들의 생을 보다 행복한 삶으로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사사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은

“그 결과는 나의 영에 부정할 수 없는 강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나는 매일 경전을 읽는 것이 인생을 통하여 행해야 할 과업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물론경을 읽자, 저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생활이 전보다 깨끗해졌습니다. 전에는 그렇게도 하기 어려웠던 기도를 요즈음엔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저는 습관을 쉽게 자제할 수 있었으며 기숙사에서 느끼는 사회적인 압력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느낌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좀더 가까이 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학 1년생인 어느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이 이토록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극심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매일 읽자 저의 생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경전이란 현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며 고대 예언자 시대에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자, 나는 경전에 있는 원리를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됨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나는 경전 읽기야말로 향상하기 위해 항상 행해야 할 목표이며 단지 목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법임을 발견하였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활동적인 한 귀환 선교사는 그가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의 생이 변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전 읽기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랐으므로 그 경험을 계속하리라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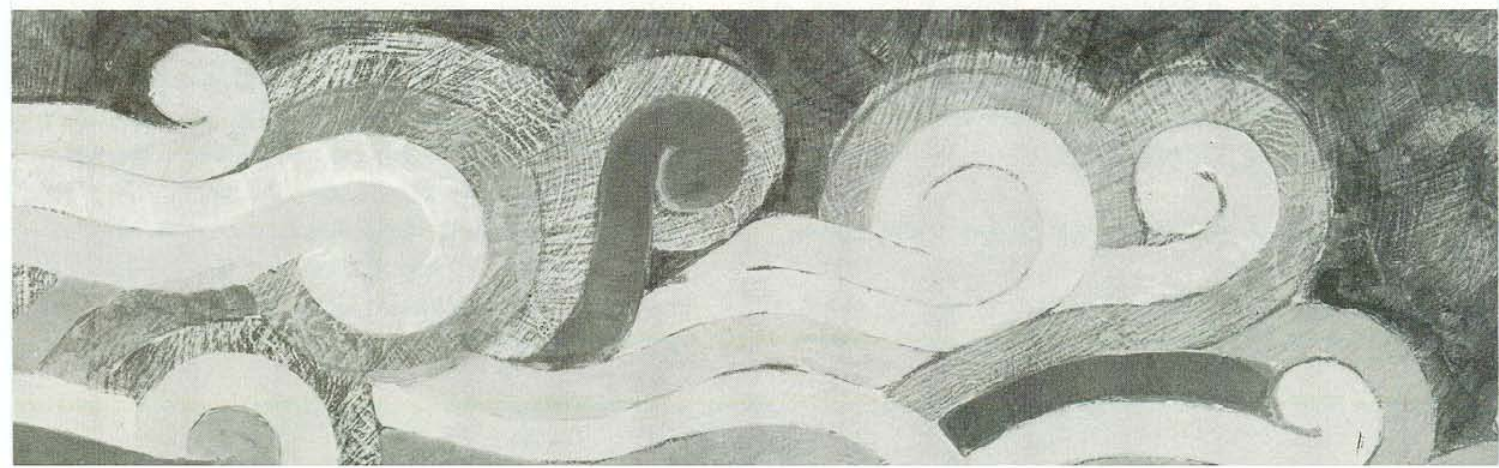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전 읽기를 시작하기 전 약 두세 주일 간 경전 읽기를 중단하고 있었던 터이라 경전을 읽음으로써 생긴 변화를 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경전 읽기를 그쳤던 기간 이전과 그 이후의 나의 경전 읽기는 내가 가장 갈망하는 일이었으며 때로는 매일 그 흥미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은 생각이 명확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나의 기질은 반항적인 면이 없어지고 친근함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이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깨끗하여졌으며, 그리하여 나는 주님과 나의 영혼이 조화를 이루었으므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경전을 읽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항상 무언가 후회할 일을 했으며,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침체되었습니다. 참다운 기도와 경전 연구는 항상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물론경을 연구했으며, 특히 다른 나라 언어로 된 물론경을 여러 번 읽었던 터이라 물론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한다”(교성 88 : 62)는 것만 거듭 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아침 경전을 상고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경전은 어느 시대의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경전을 읽고, 상고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한 아버지는 8세와 9세의 두 자녀에게 매일 요일마다 신약을 녀장씩 읽도록 과

제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매번 상기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그들은 흥미를 붙여 평일에도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들은 매일 밤 자리에 눕기 전에 경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약을 완독한 그들은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만에 큰 아이는 물론경을 완독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에서 배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경전 읽기를 일상 생활의 일부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성 63 : 23) 맥케이 대관장님이 서거하시기 전에,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주님의 영향력과 영감을 매일 받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더욱 힘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매일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구세주께 더 가까이 가며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업에 가까이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꾸준히 읽을수록, 그 경험은 보다 즐겁고 자연스런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귀환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끝낸 지 1년이 된 지금에도 저는 매일 30분씩 경전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경전을 읽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음식을 취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은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험하고, 열심히 깊이 생각하고 상고할 때 비로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팔리 피 프랫

## 약 전

**프**랫 장로는 1807년 4월 12일 뉴욕주 버링톤에서 제렛과 켄티 프렛의 아들로 태어났다.

1830년 오하이오에 있던 그의 집을 떠나 동부로 여행하던 중 침례교의 한 집사의 집에서 물문경을 보게 되었다. 그 책을 읽은 후 그는 예언자 요셉을 만나려고 팔마 이라로 갔으나 그때 요셉은 이미 펜실베이니아에 있었다. 그는 하이람과 이야기했다.

1830년 9월 1일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로부터 세베카 호수에서 침례받았다. 그날 그는 저녁에 가진 집회에서 장로로 성임되었다.

1830년, 팔리 피 프랫은 주님으로부터 올리버 카우드리, 피터 휘트머 이세, 지바 피터슨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뉴욕의 서부로 여행하게 되었다.

그는 동반자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서부로 2100킬로미터를 여행하였다.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에 도착하자 그들은 인디언에게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샤우니즈족과 델라웨어족을 방문하여 물문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프랫 장로는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택함받은 첫 번째 사도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1835년 2월 21일 오하이오주 키틀랜드에서 성임을 받은 때는 그의 나이 27세였다.

그는 1836년에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존 테일러와 그의 여러 사람에게 침례주었다.

프랫 장로는 1840년 영국에서 밀레니얼 스타지를 발간하였다.

1847년 그는 솔트레이크로 이주하여 데저렛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데 협조하였으며, 의회의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후에 유타가 미국의 영토로 가입되었을 때 그는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851년 최초의 남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프랫 장로는 유능한 문필가요 시인이었으며, 그의 저서는 오늘날까지도 많이 애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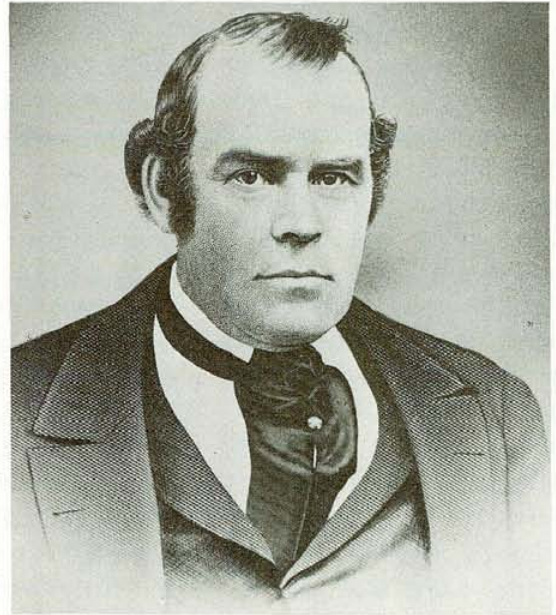
그는 1857년 5월 13일 아칸소우주 반-뷰렌에서 사망했다.

프랫 장로의 자서전에서 발췌한 것을 여기에 실는다.

“사도들의 생애에서 발췌한 이야기” 레온 알 하트손 편, 1972년 데저렛 출판사,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

나는 얼마동안 걷다가 앉아서 잠깐 읽곤 하였읍니다.

추측하건대, 여기 모인 회중 중에는 나의 간증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뉴욕주의 황무지에서 조직되었던 첫해부터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것은 1830년 4월 6일이었으며 그해 9월초에 나는 침례를 받았읍니다.



내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을 때에는 조그만 방에 전 세계의 회원이 모여 있었으며 그 수는 불과 50명도 채 못되었읍니다.

주님의 사업에 관하여 맨 처음으로 나의 관심을 끈 것은 물문경이었습니다. 우연히 물문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문경에 대해서 전혀 낯설고 또한 그 책을 믿는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우연히 물문경 한 권이 쥐어지게 되었으며, 그는 나에게 이 책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의 집에 와서 함께 읽어 보자고 권하였읍니다. 나는 그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하루 여행 길쯤 떨어져 있었으며, 캠프벨라이츠 또는 개혁 침례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경전을 상고하였으며, 경전을 이해할 수 있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



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영과 지혜를 불어 주셨고, 따라서 나는 상당히 많이 경전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복음의 의식과 첫째 원리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열어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의 힘과 은사와 권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힘과 권능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미 예언된 일이 성취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힘과 권능이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추구하는 모든 것이었으며 성령은 나에게 내가 이것을 생전에 보게 되리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빛을 던져 주는 일을 계속하였으며, 그러는 동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물문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열심히 읽었으며...읽는 동안 나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내가 읽는 동안에 주님의 영이 내게로 와서 나의 마음을 밝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이해력과 판단력을 새로이 해주었는데 그 결과 나는 마치 어두운 밤에서 밝은 빛을 보듯이 이 책이 진실하다는 것과 다른 많은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하늘로부터 분명한 음성이 있었거나 천사가 알려 주었거나, 밝은 시현이 보여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해의 영, 내 안에 있던 진리의 빛으로 인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요, 경전을 온전케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앉아서 물문경을 처음 읽던 날 나를 찾아 온 이웃 사람들에게 햄블린이라는 나이 많은 침례교 집사의 집에서 물문경의 진실함을 간증했습니다.

이 영은 나로 하여금 물문경의 번역자 요셉 스미스를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뜨거운 8월의 한 나절 동안을 나는 밤에 물집이 생기면서 도보로 그가 살고 있다는 곳으로 여행했습니다. 밤에 나는 그 당시 뉴욕주 온타리오군에 있던 만체스터라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를 물고 있는 사람을 보자 물문경의 발전자요 번역자인 요셉 스미스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요셉이 이곳으로부터 약 140킬로 가량 떨어진 펜실베이니아 주에 살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을 묻자 소몰이는 어떤 집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도 다른 곳으로 여행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이야기하던 중에 그는 자기가 예언자 요셉의 형인 하이람 스미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본 첫 말일성도였습니다...

나는 미리 약속된 모임에 참석했으며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의 형인 하이람의 집에 다시 왔습니다. 그는 내게 물문경을 한 권 선물하였습니다. ... 나는 얼마 동안 걷다가 앉아서 잠깐 읽곤 하였습니다. 나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나의 정신이 맑아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몸으로 고대 미대륙에 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마치 눈앞에 보는 듯이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죽음에서 일어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으며 미대륙 바운티플 땅에 오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선약을 맺은 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중들은 나의 말을 경청했으며 매우 흥미를 갖고 들었으므로 또 약속해 달라고 종용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 자신이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약속할 수가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하이람 스미스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약 35킬로미터 떨어진 뉴욕주 세네카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이람은 내게 물문경 서두에 나오는 세 목격자와 여덟 목격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세 목격자 중의 한 사람인 올리버 카우드리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다음 날에는 세네카 호수로 가서 교회의 두 번째 사도이자 천사의 성역을 받은 올리버 카우드리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나는 같은 날 열린 작은 모임에서 성신이 충만한 가운데 확인을 받았으며 장로로 성임되었습니다.



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은 1830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나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려는 사건은 1838년 미주우리주 파웨스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이 베렛은 그의 저서 회복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습니다.

1. 성도들은 원래 원주민과 달랐다. 성도들은 대부분이 미국의 북동쪽으로부터 이주해 왔으나 대부분의 원주민은 남부에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당시에 그 두 지역 간에는 심한 불신의 풍조가 지배하고 있었다. 더우기 미주우리 지방은 비교적 원시적인 미개척지였으며, 대부분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법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모여 든 곳이었다. 그러나 반면에 물론 정착주민들은 정직하고 근면하며 야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곧 농장을 개간하고 좋은 집을 지었다.

2. 성도들은 시온이 미주우리주 켈슨군에 건설될 것임을 약속받았다. 원주민들은 성도들이 그 땅을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될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지역에서 물몬의 수가 점점 늘어 나자 원주민은 필요 이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3. 성도들이 이룩한 협동 농장과 산업은 이미 그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던 농장과 산업에 맞서게 되었다. 또한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만 서로 친분을 가졌으며 결혼하였다.

4. 미국내에서는 노예 문제에 대한 긴장도가 한창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북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불법이었으나 남부에서는 합법적인 것이었다.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주와 반대하는 주가 거의 반반이었으며 의회에서는 노예 폐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다.

그 당시 미주우리주는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주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주로 계속 모여 드는 물몬은 노예를 두고 있지 않았다. 물몬의 수가 점차로 늘어나고, 시온이 미주우리 전역을 에워 싸게 될 것이라고 물몬이 말하자, 노예 제도 지지자들은 위협을 느꼈다. 노예를 부리고 있는 미주우리주의 주지사가 폭도들의 핍박을 그치게 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일 것이다.

5. 성도들에게 압력을 준 또 하나의 세력은 그 지역에 있던 신교의 목사들의 시기심이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대항하도록 폭도를 충동시키거나 그러한 무리에 가담하였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건에서 프랫 장로는 “군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합중국의 군대가 아니라 주지사 보그스의 명을 받는 주 의용군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의용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성도들과 폭도들간에 대립을 막기 위하여 징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용군의 대부분이 폭도들이었으며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장교들이 폭도들에 대하여 동정적이었으며, 성도들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기 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파웨스트에 살던 성도들은 술책에 빠져 그들의 무기를 버리게 되었으며, 요셉 스미스, 팔리 피 프랫 등 여러 지도자들은 배신을 당하여 적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아내는 열심히 살아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엄한 경계를 받으며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밤에 비를 피할 곳 하나 없는 땅 위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보초병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육설을 퍼부으며 놀려 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가장 무서운 욕을 거리낌 없이 하며 요셉 형제와 다른 형제들에게 조소하면서, “어디, 스미스씨 친사를 보여 주시지.” “제시를 보여 봐.” “기적을 행하시라니까.” “이봐, 어제 당신네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그 사람 집에 감금했는데 그 친구 자기 총으로 자기 머리를 빼개 놓았더군. 벽난로 위에서 건넌거리고 있었지. 지금 여기에 그를 데려다 놓았는데 말도 못하고 죽어 가고 있단 말야. 한 마디 말을 해서 고쳐 놓아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게 아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라면 어디 사슬을 풀고 나와 봐. 그러면 우리도 물몬이 되지.” 등등의 기적과 표적을 원했습니다.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으며, 강제로 처녀들과 부인들을 강간했다는 음란한 이야기를 자랑 삼아 늘어놓는 등, 감히 내가 기록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나의 구원이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에 다른 포로들이 더 들어 왔는데 그 중에 아마사 라이먼 형제도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군대의 지휘 하에 파웨스트로 행진하여 갔습니다. 그들이 광장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는 호위병의 호위를 받아 의복을 바꾸고, 8.5킬로미터 떨어진 켈슨군의 죄수로 가기 때문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나는 두세 명의 군인의 감시 하에 집으로 갔습니다. 밖에는 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 서니 아내는 전에도 한 번 앓았던 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의 가슴에는 생후 3개월 된 아들 나단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 다섯 살 된 딸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침대 발치에는 밤에 집을 나와 4평짜리 조그만 나의 오두막집에 임시로 거처하는 한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조그만 집은 허물어졌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다가가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아내가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세월이 우리를 헤어 놓는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어린 아기를 품에 안아 입을 맞추고는 떠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흐르는 눈물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양식과 연료는 떨어지고 인간성이라고 털끝만치도 없는 악당 외에는 도와 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가족을 남겨 두고 떠나기란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 “자유를 찾으라”

우리는 감금되지 않은 채 죄수로서 여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 아침에 나는 살머시 일어나 호텔을 빠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 채지 못했고 문조차 하지도 않았으므로 모험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마을을 지나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들을 지났습니다. 일 킬로미터 이상을 걸어 가, 숲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방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평평 쏟아지는 눈으로 어두워 있었고 내 발자국은 곧 눈으로 덮혀 나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동부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내가 그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의 생각이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였습니다. 아내, 자녀, 가정, 자유, 평화, 법과 질서의 땅, 이 모든 것이 나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다른 주에 가서 가족을 불러서 함께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미국의 죄수였습니다. 재판관을 받지 않고도 총살을 당할지 모르며, 공직의 모든 서약을 깨뜨리고 명예나 인간성까지도 짓밟는 암살자들이 나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노인과 힘이 없는 여인배와 어린이들의 피나는 손은 나의 파멸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크루크드강의 싸움은 납치자들과 해적들로부터 동료들의 목숨을 구해 주려던 용감한 애국자를 죽이는 살인행위로 이미 변했으며 해적들은 의용군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자유요, 뒤로 가면 클라크 대장에게 파송되어 가장 중한 죄명을 쓰고 판사와 배심원과 사형 집행자에게 차례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찾으라”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안된다!” 나는 말했습니다. “요셉 형제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적의 손에 있는 한 그럴 수 없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음이 있더라도 감수하리라.” 나는 방향을 돌려 그들이 나를 찾기 전에 호텔로 들어 갔습니다. 옷에 묻은 눈을 털자, 수위와 요셉 형제는 내게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산보하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눈보라 속을 산보했다는 말은 그들에게 약간의 재미있는 대화를 일으켜 주었으며 그일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기를 북돋우워 준 것은 주님께서 요셉 형제에게 약속하신 말씀 즉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며 한 사람도 잃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가야 할 것인지 머물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하여 생각했으며, 그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찾으리니 곧 영생을 얻으리라” (마 16 : 26 ; 교성 98 : 13참조)

## “부드러운 손이 내 손을 감싸듯 했으며”

이토록 무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길고도 지리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 오지 않은 우리 성도들은 집과 재산과 생명마저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일리노이주로 도망했습니다.

나의 아내는 몇 번 감옥에 있는 나를 방문했으나, 마침내 기간이 만료되자 주 당국은 모든 물몬이 그 지방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나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몇몇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하여 근절시키려 하였습니다.

친구나 증인이 없이, 있다 하더라도,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죽이고 쫓아 낸 “캐다이엔톤 강도단”(월 6 : 18)의 시련을 받는 것은 징계를 받고 사형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보호 없이 낯선 땅에서 이리 저리 방황하게 내버려 둔 채 이곳에서 역겨운 생활을 하는 것은 천 번 죽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의 마음 속에는 단 한 가지의 깊은 생각이 자리잡았습니다. 지상의 인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정말 계시다면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진리를 그로부터 얻게 되리라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요, 언제 어떻게 구출될 것인가도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언제가 되든지, 아직도 요원하든지, 어떤 고난을 받든지간에 내가 결국은 전과 같이 다시 생활의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며, 다른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내가 받는 고통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든지,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든지, 루키 산맥의 제곡에서 방황하게 되든지, 모든 것은 단지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 나는 이른 시간에 조용

한 나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감옥의 윗 칸에서는 다른 감옥수들과 간수들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자리에 누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성령에 이끌리고 있음을 느꼈으며 나를 둘러싸고 있던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고요함이 나의 가슴을 뿌듯이 메웠습니다. 가장 온화한 사랑과 연민이 어린 얼굴에 사랑의 미소를 머금은 영의 세계로부터 온 한 사람이 나의 앞에 섰습니다. 부드러운 손이 내 손을 감싸듯 했으며, 온화하고도 따뜻한 광채가 나는 그의 얼굴이 내 얼굴에 닿는 듯 하였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로 그는 나에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를 듣자 나는 이년 전에 이미 고인이 되어 사악한 사람들의 괴롭힘이 미치지 않고 지친 영혼이 쉬고 있는 곳에 편안히 쉬었던 젊었을 때의 아내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곧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내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하여 그녀가 보내졌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깨닫자, 나는 가장 진지한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얻어, 가족과 만나 생활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가 오겠소?” 그녀는 분명하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만족스러운 것이었으나 또 한 가지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언제 구출될 것인지 내게 말해 줄 수 있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은 저도 아직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곧 마지막 질문이 나의 결심과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대답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영은 내게 인사하고 물러 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간수들의 음울한 소리, 배도자들의 거칠고 성난 소리가 나의 컷진을 때렸으나 나의 영혼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다음에 소개하는 사진은 예언자, 프랫 장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미주우리주에서의 부당한 감금에서부터 구출되어 일리노이주에서 성도들과 다시 모였을 때 일어난 사진입니다.

우리는 퀸스에서 약 7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새로운 도시 나부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외의 미주우리주의 핍박에서 살아 남은 피란민들이 정주하였습니다. 이곳은 이미 성도들의 집합 장소로 성립된 곳이었으며, 많은 가족들이 땅 위에서 혹은 나무 밑에서 혹은 마차 속에서 거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낡은 건물을 사거나 세를 내고 빌려 들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미시시피강 맞은 편에 몬트로스라 불리우는 곳에 있는 사

병들의 초소로 사용되었던 낡은 통나무 집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심한 핍박으로 인한 고생은 유행병을 야기시켰습니다. 여기 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한 열과 오한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바람막을 곳 하나 없는 맨 땅위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일년 전 리치몬드에서 모욕의 시련이 끝난 후로부터 만나지 못했던 요셉 스미스 형제를 만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서로 부둥켜 안은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가을 미주우리주 잭슨군으로 끌려갈 때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하신 약속을 이루시어 우리를 구속에서 나오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막 11:10)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따스한 연민의 정과 형제애를 가지고 나를 축복하셨는데 그것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하이람 스미스와 다른 많은 감옥수들을 만났으며, 그들을 만난 기쁨과 만족감은 말로써 형용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언자의 부모와 예언자 자신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손을 잡고 그들은 어린 아이처럼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워스트에서 우리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에게 이끌려 갈 때 그들의 얼굴에 흐르던 눈물과는 너무도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재회의 고조된 기쁨이 사라지자 나는 요셉 스미스와 함께 스키프를 타고 몬트로스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러 떠났습니다. 몬트로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눈 앞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엘라이자 포드함이라 하는 나의 옛 친구도 있었는데 그는 1837년 나와 함께 뉴욕시에서 동업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열병의 마지막 기에 접어 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거의 말도 할 수 없었고 다리에는 습포를 붙였으며 눈은 쾅하니 들어 가 있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파리한 그의 몸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울면서 남편을 위한 수의를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형제는 그의 손을 잡고는 죽은 자라도 일으킬 만한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포드함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소리는 집집으로 퍼져 나가 거의 온 이웃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자의 울음소리 같았으며 천둥의 뇌성같이도 들렸습니다. 즉시 포드함 형제는 누워 있던 침대에서 일어나 다리에 붙인 붕대를 풀고는 다른 사람이 부축해 줄 여유도 주지 않고 혼자 옷을 입고는 ...먹을 것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집집마다 다니며 병자를 돌봐 주었으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병자 축복을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명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圖

**가** 족과 함께 등산을 하던 여덟 살된 영철이는 갑자기 큰 소나무 사이로 그를 향해 달려 오는 큰 검은 개를 보았습니다. “곰이다. 곰이다!”라고 소리치며 소년은 도망갔습니다. 소년은 진짜 꿈을 만난 것처럼 크게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년은 모든 어린이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린이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그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어린이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는 그 어린이의 행동을 결정지어 줍니다. 어린이의 정신적인 건강은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신적 발육을 저해하는 큰 이유는 어린이 자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며, 이것은 그들을 그릇된 행동으로 이끌게 됩니다. 영이가 자신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라고 자신을 평가한다면 비록 영이의 부모가 영이를 무척 사랑한다 하더라도 영이는 사랑받지 못하는 어린이처럼 행동하고 우울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결코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참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실인 듯이 행동합니다. 경수가 자신을 바보로 생각한다면(비록 지능지수는 상당히 높아 천재의 재능까지도 보인다 해도)경수의 부정적인 견해는 그의 행동에 제약을 줄 것입니다. 경수는 자신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능을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못할 것이 두려워 읽기를 배우려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시도해 보지 않으면 실패할 것도 없지”라고 생각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매일 매일의 태도는 자녀의 자기 인식을 확립시켜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명확한 인간성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이 자녀로 하여금 긍정적이고도 사실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도록 도와 준다면, 이러한 자기 인식은 훌륭한 정신 건강과 완전한 인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이를 원할진대 어찌 우리가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겠습니까?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결점을 지적해 내는 일은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명수에게 단정치 못하고 게으르다고 말한다 해서 명수가 단정해지고 근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을 단정치 못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의 나쁜 버릇은 더욱 심해집니다. 어린이들은 비난이나 편견을 치명적인 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종종 자녀의 성품이나 행동에서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 마치 의무나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비평하기 좋아하는 사장의 밑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칭찬이라곤 전혀 하지 않고 결점만을 지적해 내는 사장 밑에는 우울하고 생기가 없는 고용인이 있을 것이며 사원 교체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을 때 칭찬을 아끼지

**자녀에게  
“나도 할  
수 있다”  
는  
느낌을  
주십시오.**

**달라 라스 행스 클**



1974년 5 월호



명수에게 단정치 못하고 게으르다고 말한다 해서 명수가 단정해지고 근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을 단정치 못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의 나쁜 버릇은 더욱 심해 집니다.

않음으로써 여러분은 고용인의 협동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계속 부정적인 면만을 지적함으로써 여러분은 낙담과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점만을 찾아 내는 부모라면 자녀는 자신을 그러한 결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저자, 하임 지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어린이가 못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린이는 처음에는 ‘아냐, 내가 왜 못난이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못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말을 믿고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믿게 된다. 그 어린이가 넘어지거나 뒤통거리기라도 하면 그는 자신에게 큰 소리로 ‘이런 못난이 같으니라구’ 하며 소리치려지도 모른다. 차차로 자신이 너무 못난이라서 민첩하게 행동해야 하는 경우에 잘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경우를 회피하게 될지도 모른다.”(뉴욕, 맥미란사, 1965년, 47-48페이지)여러분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호에게 자꾸 집안의 말썽꾸러기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성호는 가족이 모두 자기에게서 말썽을 예상하고 있다고 느끼므로 더욱 말썽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듯이, 성호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인식은 어린이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의 세련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낄 것이며 끊임없이 비난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가 자신에 대한 인식이 옳다고 확신하는 한 그러한 태도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그릇된 자기 인식은 어린이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릇된 자기 인

식이 가져다 주는 좌절감은 “말썽꾸러기” 어린이들의 반항의 원인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들은 이들에게서 나쁜 행동을 예측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분개하게 되며 이들 자신도 자기들이 나쁜 어린이라는 것을 자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는 자신에 대하여 인식하는 바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어린이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에는 관계없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명한 작가 맥스웰 말츠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실패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의도가 좋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긍정적인 면에도 해당됩니다. 자신을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어린이는 어떠한 방해나 험담이 있더라도 성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는 어떻게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이룩해 줄 수 있습니다. 수련이가 체육 교습에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냐, 하지만 너는 그렇게 어려운 백클링을 잘 해 낼 수 있을 거야. 네가 아기였을 때 걸음마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냐? 결코 중단하지 말아라. 몇 번이나 넘어지더라도 말야.” 부모는 긍정적인 장점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자녀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거짓없는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종미가 음식을 만들고 싶어하면 종미에게 사다나나 화채 만들기와 같은 기술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종미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줌으로써 종미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확신을 얻어 더욱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기호가 미술에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게 여러 가지 일할 자료를 주어서 그의 노력을 인정받도록 하십시오. 순아가 옷을 치웠을 때, 경훈이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 대혁이가 독창력을 발휘하여 학교 일을 끝냈을 때,

여러분은 특별한 칭찬의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잘못을 저지른 일을 나무라기 보다는 잘한 일을 칭찬해 줌으로써 여러분은 어린이의 힘을 강하게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네 살 된 정이가 잠자리를 개는 법을 배운다고 합시다. 정아는 약 20분에 걸쳐서 겨우 이불을 개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반듯하게 잘 되었지만 다른 한쪽이 빨래판처럼 우글쭈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정아가 이불을 잘 개었구나! 이쪽 좀 봐. 아주 반듯하게 개어 놓았는 걸!” 이라고 말하고 주름진 쪽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정아는 다음 날 아침에는 더욱 열심히 이불을 개어 점점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정아야. 잘했긴 하지만 이쪽

에는 맨 주름투성이구나. 좀더 열심히 해야 해”라고 말한다면 정아의 이불 개기에 대한 열의는 사막에서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이 모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철수같은 아이라고 말했다면 철수는 갑자기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노력하여 달성한 것을 칭찬할 때만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지나치게 칭찬을 받을 때는 칭찬하는 어른이나 칭찬받는 어린이나 모두 석연치 못함을 느끼게 되며, 이는 곧 그들의 성품에 흠이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잘 알 때, 그는 자기의 가장 나쁜 면을 그의 결점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영태가 마당을 치웠을 때 마당이 참으로 깨끗하다거나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되 영태가 참 좋은 아이라거나, 도움을 주는 아이라거나 귀한 아이라는 등의 칭찬을 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칭찬이란 영태로 하여금 가장 우수한 사람처럼 생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그가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지적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용호가 마당에 씨를 심을 때 감자의 눈을 위로 향해 심어야 하는데 아래로 향해 심었다면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은 씨를 심는 방법에 대하여만 지적하고, 그 어린이의 성품을 언급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바보야, 온통 잘못해 놓았구나.”라고 말하지 말고, “씩은 위로 올라 오지? 그러니까 눈을 위로 향하게 해서 심어야겠지?” 라고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호가 한 줄에 정확하게 씨를 몇 번 심을 때 잊지 말고 칭찬해 주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찬사를 보낸다면, 자녀의 긍정적인 자기 인식은 건전한 정신 건강을 이루게 됩니다. 자녀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지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을 누리도록 도와 주십시오.

최근에 스페인에서 돌아온 헝스 자매는 남편이 직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곳에서 상향회와 초동협회에서 활동하였다. 두 자녀의 어머니인 자매는 현재 프로보 노스스 테이크 프로보 18와드 회원이다. 圖

자신을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어린이는 어떠한 방해나 험담이 있더라도 성공하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 아론의 새 모자

1974년 5 월호

캐롤린 글뢰크너 글 / 하워드 도스트 그림

**아**론은 집 옆 그늘에 누워서 부지런히 벌들을 닦고 있었다. 나무들이 매끄럽게 될 때까지 오래된 왁스를 긁어내고는 새 왁스 한 장을 철사판 위에 놓았다. 각 왁스지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었다. 일벌은 이 왁스 위에 벌집벽을 만들고 그 육각형 집안에 꿀을 채우는 것이다.

“아론아!” 아버지가 부르셨다. 아버지는 형과 함께 잔디밭을 가로 질러 그에게 가까이 왔다. “어머니 모시러 시내에 가려 한다.”

아론은 기어 나오면서 물었다. “저도 가요?”

“아니, 너는 틀 닦는 일을 마쳐야겠어. 곧 분봉이 시작되면 벌떼가 날아가 버릴 텐데 어서 준비를 해 두어야지.”

“올해에는 벌을 모으는 일을 저도 하게 해주세요.” 아론이 말했다.

“아직 어려” 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

다. “벌 한 마리라도 잃어서는 안되고 또 너도 잃어서는 안되지.”

“알겠어요.” 아론이 말했다. 그의 가족에게는 벌이 매우 중요했으므로 더 이상 말할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아론은 알았다. 지난 여름에 휩쓴 병충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반이 못쓰게 되었으므로 올해 꿀을 파는 돈에 크게 의존해야 할 형편이었다.

아론은 언제나 자기도 자라서 양봉일을 도울 수 있을까만 생각할 뿐이었다. 아버지와 형이 벌통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동경 어린 눈으로 쳐다 보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형을 가진 게 잘못이야. 난 항상 동생이거든. 항상 너무 어려서 안된다니!”라고 아론은 벌들을 닦을 수 있을 만큼 자랐는데 왜 양봉일 하기에는 어리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형이 낡은 트럭을 몰고 길을 빠져 나가자 아론은 다시 벌들을 소제하기 시작했다. 아론은 벌들을 한 아름 안아다가 벌통이 줄지어 늘어 선 마당으로 내왔다.

마당 맨 끝에 있는 빈 벌통 속에 틀을 걸어 놓자 사방에서 벌들이 모여 들었다. '한 번만 더 나르면 다 끝내게 될거야' 라고 생각했다.

벌들을 빈 통에 다 넣고는 두 번째 틀을 마당으로 날랐다. 갑자기 아론은 멈추어서서 소리를 들었다. 벌들의 붕붕거리는 소리가 전보다 더 크게 들렸다.

"벌떼 이동이 시작되려는 모양인데." 아론은 줄지어 늘어 선 벌통을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았다. 벌들은 분주히 벌통을 들락거렸다. 그러나 셋째 줄 마지막 벌통에 가까이 가자 아론은 자기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벌떼들이 벌통 한 쪽에서 마치 황금색 조청처럼 넘쳐 나왔다.

벌떼의 이동이 시작된 것이었다!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아론은 길 아래를 결눈으로 보았다. 아버지의 트럭이 돌아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벌떼는 여왕벌을 따라 언제라도 높이 날아가 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아론은 알고 있었다.

아론은 창고로 뛰어가 부리나케 벌통 지붕을 가지고 돌아왔다. 정방형의 흰색 뚜껑을 제자리에 놓았을 때, 아론은 벌들이 갈색의 무리를 이루어 날아가 버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창고 옆 버드나무 숲을 향하여 날아가는 벌떼를 바라보는 아론은 마음 속으로 크게 낙담했다. 그곳에서 벌떼는 속도를 늦추어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더니 버드나무가지에 내려 앉았다.

아론은 아직도 벌떼를 벌통으로 모을 시기가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다. 아론 스스로 벌의 이동을 변경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벌 지키는 데 사용되는 장비가 들어 있는 창고로 바삐 가서 아버지의 작업복을 입었다. 바지 단과 소매 끝을 걸어 올리고 벌에게 손목이나 발목을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끈으로 소매 끝과 바지 끝을 맺었다. 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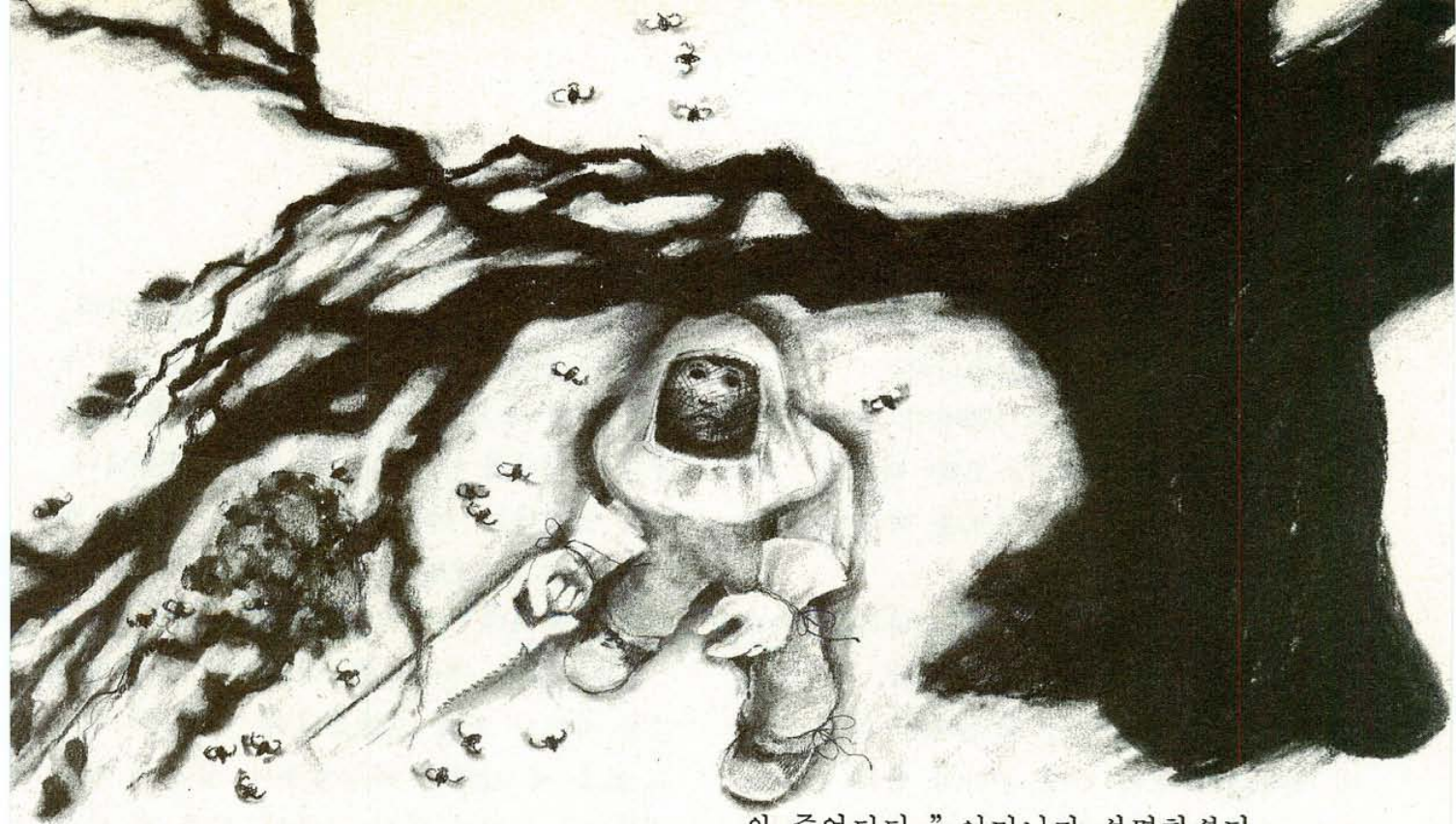
는 아론에게 너무 커서 챙이 어깨까지 내려왔다. 그는 재빨리 깃 위로 목둘레를 맺었다. 그리고는 톱을 쥐고는 버드나무를 향해 걸어 갔다.

재빨리 그는 벌떼가 다시 날아가지 않기를 바라며 벌떼가 모여있는 가지를 톱으로 잘랐다. 가지를 자른 후 아론은 가지를 들고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벌통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론은 벌떼를 이처럼 가깝게 본 적이 없었다. 분봉하는 벌은 벌통을 지키는 벌보다 덜 쏘다는 것을 아론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벌이 위협을 느끼거나 여왕벌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론이 걸어 가고 있는 동안 벌 한 마리가 그의 모자 안으로 들어와 목 주위를 붕붕거리며 돌아 다녔다. 가지를 던져버리고 모자를 벗어서 벌을 쫓아 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그렇게 한다면 벌떼를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아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마당을 가로 질러 벌통이 있는 곳으로 계속 걸어 가면서 아론은 목 주위에서 맴도는 벌에 대해서는 잊으려고 노력했다. 곧 두 번째의 벌이 첫번째 벌을 따라 창속으로 들어왔다. 벌 한 마리가 아론의 목을 쏘았다.

지친 소년은 이를 갈면서 벌떼를 조용히 벌통 위에 내려 놓았다. 벌들이 또 날아가 버릴지도 몰랐으므로 벌떼가 모두 벌통 속으로 들어 갈 때까지 아론은 기다려 지켜 보았다.

조심스럽게 아론은 나무가지를 버리고 벌통 지붕을 덮었다. 아론은 지쳤다. 아버지의 옷을 벗으려 창고에 왔을 때는 벌에게 쏘인 그의 목은 불처럼 화끈거렸다. 옷을 막 갈아 입고 나자 소리가 들려 쳐다 보았다. 형과 아버지가 창고의 문지방에 서 계셨다.

“아니 웬 일이냐, 아론아?” 어머니가 물으셨다.

“벌에게 쏘였어요.” 아론이 대답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났길래 좀 도

와 주었던단다.” 어머니가 설명하셨다.

“내가 뭐랬니? 벌통 가까이에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아론은 설명했다. “벌떼가 분봉을 시작하여 이동했어요. 아빠가 돌아 오시기 전에 벌떼가 다 날아가 버릴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서 다른 새 벌통으로 벌떼를 옮겼어요.”

“너 혼자서? 아니 어떻게 그걸 했지?”

“아빠랑 형이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거든요.” 아론이 대답했다. “한 마리도 날리지 않았어요.”

“잘 했다.” 새 벌통을 돌아 보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훌륭한 벌치는 사람야. 이제부터 아빠와 형을 도와 일하겠니?”

“야, 신난다. 물론이죠. 아빠” 아론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선 필요한 건 제게 맞는 모자예요.”

목에 부어 올라 화끈거리는 혹을 문지르며 아론은 즐겁게 웃었다. ㉠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행 1:21-22)

요셉 바사바와 맛디아가 천거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가 되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후에 맛디아가 다른 11사도들에 의하여 택함을 받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수절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열두 사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



회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신의 충만함을 입고,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성내에 두루 퍼졌으며,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모인 집 밖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은 무리에게 선교 사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성신의 능

력으로 인하여 그들은 모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심히 놀랐으며, 강한 성령의 힘을 얻어 감화받은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하며 의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다.”(행 2:38)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 날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삼천 이상이 되었습니다. 8

## 오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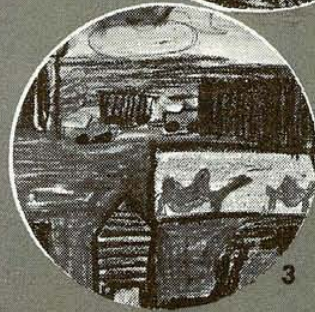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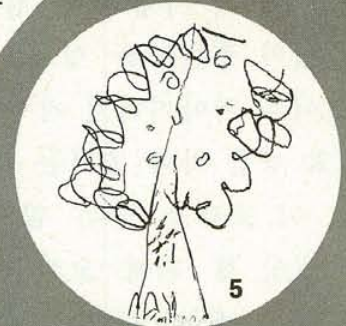
사도행전 1장,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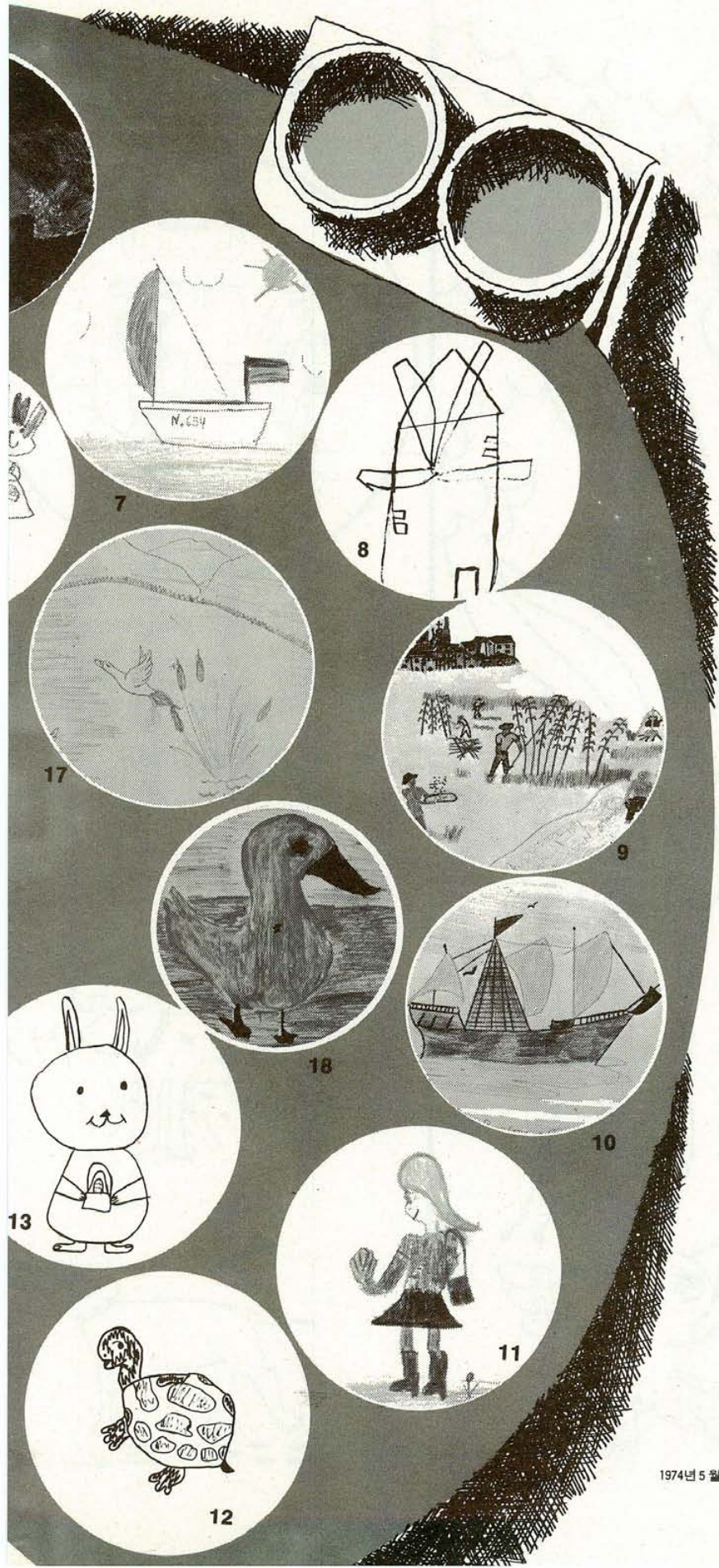


성경

1974년 5 월호

# 창조적인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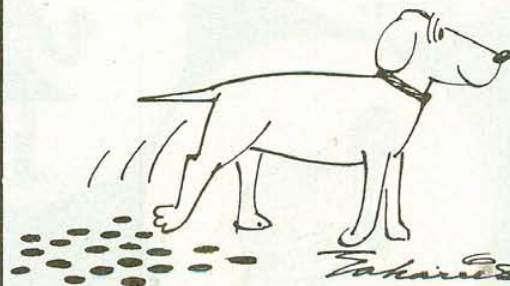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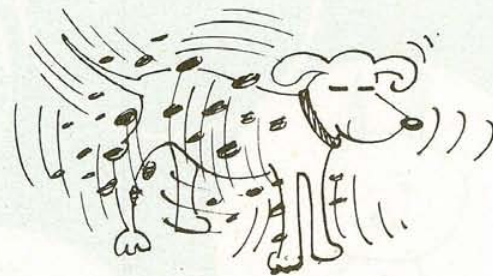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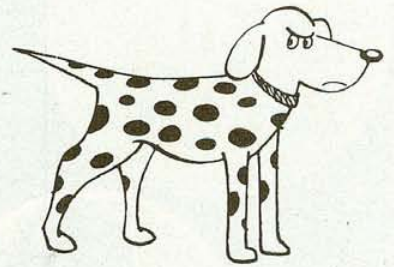


## 창조적인 친구

1. 크리스티나 카르도나 마르티네즈, 10세,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생.
2. 마르타 카르도나 마르티네즈, 5세,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생.
3. 조세 루이스 마르티네즈 길, 7세,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생.
4. 제세스 주안 카르도나 마르티네즈, 10세,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생.
5. 웨인 입센, 3세, 덴마크 코펜하겐 태생.
6. 라파엘 마르티네즈 길, 9세,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생.
7. 아돌프 가리가, 8세, 스페인 바달로나 태생.
8. 마누엘 조세 파체코 라미레즈, 5세, 스페인 바조 태생.
9. 길베르트 로셀, 12세, 스페인 몽가 태생.
10.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메사스 퍼레즈, 10세,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생.
11. 리디아 로셀, 9세, 스페인 몽가 태생.
12. 카트리네 바르네스, 8세, 스페인 마드리드 태생.
13. 노니 라이닝, 8세, 와이오밍 파우엘 태생.
14. 켈리 에이 스코트, 10세, 아리조나 메사 태생.
15. 폴 벤담, 9세, 영국 베즈 태생.
16. 질 라이닝, 6세, 와이오밍 파우엘 태생.
17. 가린 입센, 11세, 덴마크 코펜하겐 태생.
18. 로사 마리 마르티네즈 길, 10세,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생.



# 심심풀이



아가 참새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선을 따라 가야 할까요?



#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오 레슬리 스톤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1974년 5월호

**우** 리 모두가 구세주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가 세상에 주신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영감입니다. 그분은 역사 시대 훨씬 이전부터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 하늘을 짓고 지구를 창조하며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사탄의 계획과는 반대로 그분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분은 절정의 시기에 이 지상의 약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가르치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부를 얻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찾으려고 그를 좇았습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새로운 생활 규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남을 비난하지 말고, 용서하며, 모든 사람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보면 그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며 그 죄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필요한 대인 관



계에 관한 영원한 규범을 우리 사회에 주었으며, 이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나니 선지자니라”

이 원리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이 원리대로 우리가 생활한다면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쉽게 풀릴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대로 생활했다면, 우리를 대적하여 범죄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는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39절에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가서 질문한 내용이 실려 있

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옆집에 사는 사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같은 시에 사는 사람, 같은 도에 사는 사람, 같은 국가에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와 관계가 있고 서로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람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도 해의 영광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은 처음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40)

그는 이 두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어 모든 율법과 계명이 이 두 계명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함께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두 번째 계

명은 지키지 못하면서 첫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찌니라” (요한일서 4:20-21)

니파이삼서 11장 29-3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버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고 분노를 돋구어 서로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의 가르침이니라”

이러한 성구와 다른 여러 성구를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동료와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니파이삼서에서 인용한 것처럼 분쟁과 다툼은 악마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생활에 깃들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용서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죄지은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그녀는 돌

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구세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다스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7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아니하는 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들 중에는 아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리는 점점 자리를 떴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돌아 서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확실히 그 여인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를 보였으며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도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을 그 순간에 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 지상에 가져 오셨고 이 경륜의 시기에 회복된 복음은 우리에게 훌륭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살았으며 그곳에서 매우 용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얻고, 지식을 쌓으며, 기술과 성품을 연마하고, 악을 대항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실하고 신앙을 지닐 수 있는가를 시험받으며, 근면하게 생활하고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돌아가 살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지상에 우리를 내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는 기실 축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고난의 경험을 이 세상에서 겪어 체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물문경에서 베냐민 왕이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축복을 세면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모 2:22)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란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며 결코 간단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줄 때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불완전을 극복하는 능력을 요구하십니다. 그는 자기 부정과 자기 수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 중에는 때때로 주님의 계명이 우리 생활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므로써 신앙이 강한 자에게 약속된 충만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밤이 지나면 낮이 온다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때때로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



너희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회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 ”  
(교리와 성약 82 : 10)

심판의 날에 계명을 지키는 데 소홀하여 주님의 종으로 합당치 못하였다는 말을 듣거나 자신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이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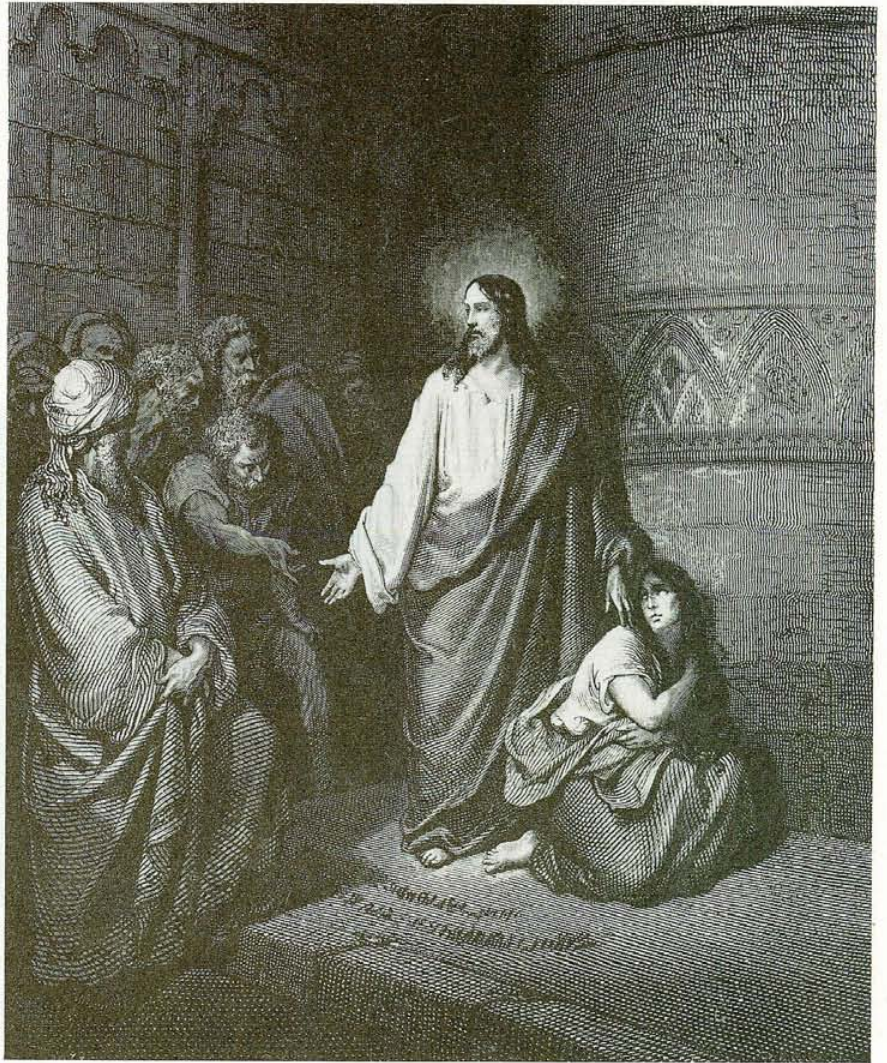
이 놀라운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으로 온 인류에게 다음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는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중 가장 큰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4 : 7)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이는 내일의 임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이란 봉사와 업적의 하나임을 거듭 강조하셨읍



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귀로 듣기만 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과 승영과 영생을 얻으려면 복음의 원리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간증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요셉

스미스는 이 복음의 회복을 가져다 준 주님의 도구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현재도 예언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언자이신 해롤드 비리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위시하여 그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며 그들이 그들의 막중한 임무를 잘 이행하도록 건강과 힘과 영감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원칙대로 생활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圖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3차 반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

# 순종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나는 늘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영적인 감화를 받게 되며 용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세상의 빛이 되고,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사탄의 역사를 막는 영향을 주도록 택함을 받고 성임되며 성별되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손자 아이에게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뭘, 아직도 먼 일 인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 여러 어른들과도 이야기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과 함께 신권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것을 먼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일은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은 젊은이들에게 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말일에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고 있는 지상의 유일한 교회에서 신권을 받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주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을 돕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기록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교리와 성약 84 : 33, 34, 38)

이제는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에게 전하는 계명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84 : 43-44)

니파이이서에서 기록된 바와 같은 악의 세계에서 투쟁하여야 하는 오늘날처럼 여러분의 힘과 영향력을 필요

로 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악마에 대하여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보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인식처를 좃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파이이서 28 : 20-21)

형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대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만족한 상태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성별된 임무를 수행하려면, 우리는 신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수양하고 율법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은 지상에서의 행복과 안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하고자 하는

바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노소를 막론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짚막한 시 한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  
영원하신 진리있어  
인간을 강압하잖네

지혜와 사랑 빛으로  
바르게 훈계하시고  
친절과 선하심으로  
주 결코 억압하잖네

자유와 이성 있어서  
만물의 영장되나니  
만일에 이성 없다면  
금수와 다를 것 없네

말일성도 찬송가 126장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한다면 비록 그 결과가 당장에 오지는 않을지 모르나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기 수양은 성공의 기초가 됩니다. 인간은 회생과 자기 수양이 가치 있는 일이 되거나 말거나, 또는 교회에서의 활동이 동료들로부터 빈축과 압력을 받거나를 개의치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

러분은 신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모범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공의 열쇠는 우리의 결심, 결정, 자기 수양,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 : 21)  
주님께서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10)

자연의 법은 융통성이 없으며 정확합니다. 플라시건 고의로건 간에 여러분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댄다면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고압선을 만진다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력을 부인하겠다고 말하며 고층 건물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면 여러분은 아직 중간쯤 내려 오면서 “아무 일도 없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 달, 별을 생각하거나, 일식, 월식을 생각해 보면, 여러 해가 지나도 과학자들은 일식 또는 월식이 일어나는 시각과 장소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아침에 떠오른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태양이 몇 시간 만이라도 늦게 떠오른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태양이, “오늘은 떠오르지 말아야지” 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한다면 우리는 얼어 죽을 것이며 이 지상에 생명을 유지하는 생물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미국 우주 탐험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연법을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결정지어 주는 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들과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의 법이 명하는 일을 행하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노력하면서 수년 동안 생활하였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훈련시킬 때 그 동물이 시키는 대로 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냥개나 양치는 개나 말을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곡마단에서도 곡마단 동물을 같은 방법으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이 십일조를 내는 것을 주저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주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곡마단의 곡예사는 자연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동물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자연법에 굴복하기도 하면서 수년간 동물을 훈련시켜 결국은 마음대로 시킬 수 있게 준비시킵니다.

이러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시간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의 동물들이 올바르게 행하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훈련을 시킬 수 있으며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고, 있어야 할 때에 있게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진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과, 우리를 이끄는 예언자의 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큰 축복이요 행운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원회와 지도자가 있어 우리에게 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격려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자제하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고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복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하신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모든 것이 밝히 나타날 때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두 옳습니다”

과거 긴 역사를 통해 볼 때 종종 인간은 왜, 어떤 율법이 주어졌는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담에게 왜 회생을 바치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은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모세 5:6)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아담에게는 충분했으므로 아담은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했던 것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비 한방울 내리지 않았으며 걱정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을 때 그는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

고 믿지 않았으며, 그들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의 가족 내에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은 그에게 정신 이상자라고 말했으나 그는 지시를 따랐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니파이에게 대양을 건너 배를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왜 주님은 우리에게 침수에 의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왜 우리는 손을 얹고 안수합니까? 왜 우리는 “나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한 마디만 하고 회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계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나로서는 충분히 계명이 됩니다. 니코친 사용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 지 140년 후에 씌어진 것입니다. 기사의 처음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폐와 심장과 두뇌에 해를 끼친다. 이것의 해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수는 티프스나 결핵이나 황달로 죽은 사람의 수효보다 훨씬 앞선다”

이 기사의 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6세기 초에 서부 유럽을 휩쓴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우리의 자녀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은 리하이의 가족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효는 미국에서 일년 동안 담배로 인하여 사망하는 자의 수효보다도 적었다”

주님께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주어지는 계명이 왜 주어지는지 실사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신권 소유자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은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지상에 세워진 그의 왕국의 일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말한 기사에는 니코친과 담배의 애용은 때때로 아편 또는 마약, 알코홀 남용으로 이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를 통하여 주어진 계명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의 또 하나의 예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은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



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흠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리와 성약 21:4-6)

이 약속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교회의 회원과 신권 지도자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59:9-10)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주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7일 중 하루를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주께서 행하신 희생에 감사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종종 신권 소유자들이 더욱 이러한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평가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내게 “이 교회는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님, 교회는 형제님께 아무 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무척 힘이 드는 걸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가서 시가나 좋은 담

배를 피웁시다. 나가서 은행을 털어 봅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오늘 저녁에 술집에 가서 실컷 술을 마셔 봅시다.” 그는 “대관장님, 우스운 소리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형제님이 안 하시겠다면 나도 안하지요.”라고 말하고는, “형제님이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명 한 가지만 말해 보세요. 형제님이 아들에게 지키지 말라고 충고하고자 하는 계명 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 나도 대지 못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십분지 일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밤 사이에 화재나 폭풍이나 그외의 다른 재난에 의하여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에드몬톤 지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 완전한 십일조를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을 수리해야겠고 몇 가지 지을 것도 있고 또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했으나 그 사람은 “그래도 못 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첫달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비는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그가 십일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한 십일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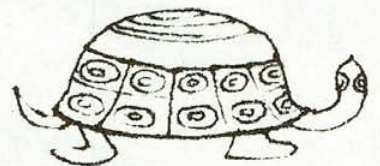
여러분이 십일조를 낼 때 그것을 제안하며 아까와 하듯이 주님도 마찬가지로 축복을 제안하며 아까와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질병이 생겼거나, 가족 중에

고통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주고 얼마만큼 아꼈는가? 최소한의 축복만을 주려면 얼마나 주면 될까?”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인임을 증명해야 하며,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권을 소유할 수 있는 큰 특권과 복음을 세상에 나눌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권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생활하며, 모든 것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이 생에서는 물론 다음에 올 세상에서의 영생까지도 풍부히 누리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주님을 대변하여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3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밤 신권 분반 모임에서 하신 말씀.



#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매리온 지름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1974년 5월호

**세** 계 각처에 있는 회원 또는 비회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개조 제1조에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속주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성스러운 주제이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독생자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연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경전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 경전에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모두 참석했던 큰 전세의 회의가 나옵니다. 이 회의에서 인간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는 인간의 구원과 승영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속을 이룰 것을 자원하였으며 그렇게 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의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주로 택하여졌으며 우리의 구속주이시라는 사실을 간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지상에 온 예언자들은 예수께서 택함을



받았으며 그가 이 지상에 와서 그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희생의 제물을 번제할 때, “...주의 한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느뇨?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이 일은 ...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 (모세서 5:6-7)

그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베푸실 때까지, 인간의 영원한 진보를 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희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장차 구속주로서 성취하게 될 대속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후에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내게로 돌아와 나의

음성을 듣고 믿어 네 모든 범법을 회개한 연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독생자의 이름 곧 이로써 인간의 자녀에게 구원이 임하는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에 들어가 침례를 받으면 너희는 성신의 은사를 받으리니...” (모세서 6:52)

“그러므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또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하니라

“아담과 이브가...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니라” (모세서 5:8, 12)

아담의 시대로부터 절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주민들에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차 전해졌습니다. 에녹, 노아, 벨기세덱,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그 외의 예언자들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 2,000년 동안 미 대륙에는 두 개의 위대한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명은 알려졌습니다. 물론경에는 “큰탑”으로부터 미대륙으로 백성을 이끌어 온 지도자 중 한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 저 앞에 보이시며 이르시기를...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빛을 갖게...되리라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이더 3:13-14, 16)

2,2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바로 전날에 관하여 물문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 오늘 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로 세상에 전하게 한 말을 이루어 보이리로다”(니삼 1:12, 13)

물론 우리 모두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들렸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라는 천사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모두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눅 3:22)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마 17:5)고 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이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 중 가장 감명을 크게 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성역을 베푸시고 미대륙을 방문했을 때, 미대륙에 살고 있던 니파이인에게 하신 선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다음과 같

은 말로써 소개하였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니파이삼서 11:7)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하강하여 “...무리 가운데 서심에, ...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니삼 11:8-10)

“보라 나는 세상을 죄에서 구하고자 세상에 구속을 가져다 주러 온 것이니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들일지니, ...그러므로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지어다”(니파이삼서 9:21-22)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과 약속에 대하여 나 개인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을 통하여 인간은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간증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장자이며, 육의 독생자임을 알고 있으며, 경전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천지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도와 인간의 죽어야 할 몸, 죽음, 부활, 영생 등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

으며,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아담과 노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수세기 동안 예언자들이 언급하던 하나님, 온 나라의 하나님,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온 지상을 다스릴 하나님”(제임스 이 탈메지, 예수 그리스도 4페이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복음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의 흠없는 생활”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자처한 그의 희생”과 죽음의 승리는 모든 인류에게 부활과 죽지 않을 몸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가 정한 조건 하에서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상의 사실에 대하여 간증드리며, 또한 1820년 이른 봄에 뉴욕주 팔마이라 근방 숲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요셉 스미스 이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간에게 나타나셨던 어떠한 사실보다 가장 위대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언자는 그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17)

예수는 그가 말했듯이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요”(교성 10:70)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교성 18 : 32) 그의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며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교성 84 : 46)을 끊임없이 깨우칩니다.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교성 84 : 46-47)

나는 거듭 간증드리노니,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예언자,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에 의하여 관리되는 교회 중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 세워졌으며, 그의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우리 주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누

리게 하기 위하여 그의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㉞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3차 반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

## 기본적인 임무 : 신권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오**늘 저녁 이 모임에 모인 신권 소유자의 숫자는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우리 서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참석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발로이며 하나님 왕국에 중요한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늘 문이 열렸으며, 신권이 회복되었고, 살아계신 예언자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820년 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귀한 생각과 말이 기록된 값진 진주의 그 장을 성구로 여깁니다. 그는 “일어난 그대로의 사실을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알리려는 것”(요셉 스미스



2서 1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건의 진상을 진실하게 또한 올바르게...진술하라”(요셉 스미스 2서 2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그의 가정 배경과 그 당시의 종교적 회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경전을 읽던 중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성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너희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예언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때의 이글처럼 나의 마음 속에 힘있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강한 힘이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 간구해 보리라는 결론을 얻고 드디어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이를 실행해 보려고 나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1820년 어느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생후 처음으로



1974년 5월호

그러한 일을 계획하였는데 나의 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괴로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때까지 소리를 내어 기도하려고 해 본 일이 한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 2 : 12-14)

이것이 14세의 소년이 한 말같이 들립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미리 계획하여 둔 곳에 은밀히 나아가 주위를 살펴보고 나 혼자 있음을 확인한 다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 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마자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혔으며 놀라운 힘에 압도되어 저항력을 잃고 혀가 굳어버려서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나를 둘러 싸았으며, 한 동안은 내가 이대로 곧 죽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하면서도 거의 실망하여 상상의 세계에서 파멸이 아니라 나를 결박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에 의하여 나의 몸을 파멸 속에 내던지려는 순간, 바로 이 매우 놀라운 순간,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이 빛 기둥이 나타나자 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2 : 15-17)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 중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생각했음

니다. 첫번째 시현은 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각 회원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과 신앙은 정비해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양심을 가지고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들은 자라면 아무도 무관심한 위치를 고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지극히 평범한 이름을 가진 평범한 소년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위대한 예언자가 되려는 준비 단계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첫번째 시현을 받은 지 9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그는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하여 사스케하나 강쪽에 나타난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이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의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다시 레위 자손들이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천사는, 아론 신권은 성신의 은사를 주기 위하여 안수할 권능은 없으나 이러한 성신의 은사를 주는 권능은 후에 부여되리라 말하면서, 가서 침례받되 내가 먼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침례를 받았읍니다. 내가 먼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침례를 주었고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올리버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아론 신권을 주었으며 다음에 그가 나

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아론 신권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2 : 69-71)

몇 주일이 지난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 멜기세덱 신권과 사도직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한 신권의 권능은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라는 사실과, 2,000년 전에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지상에 참된 신권 능력을 회복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사건의 논리적인 이치와 그 때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 역사적 사건의 신성함을 확실히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해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마침내 진리가 자리를 잡았으며 앞으로는 계시가 끊이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약 6년 후 안식일에 커틀랜드 신전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은 날에 고대 예언자인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나타나 복음의 중요한 기능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기록한 구세주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걷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 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서 계시되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회기가 깨끗한 눈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교리와 성약 110 : 1-3)

그리고는 구세주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리와 성약 11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참석한 우리

는 신권의 의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약속은 맺어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시”(니일 3:7)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의무를 이루지 못한 변명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밖의 고대 예언자들의 방편을 다시 한 번 더듬어 생각해 볼 때 이 위대한 사업에 대하여 놀라움이 앞서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확실히 일어났다는 것을 안 후에, 내가 만일 다시 집사가 되어 성찬을 전달하게 된다면, 나는 일주일 동안 해야 할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행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일거 일동을 구세주께서 내게 위임하신 직분의 명예와 위엄에 일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식 헌금을 모으는 일은 나에게 크고도 새로운 의미를 줄 것이며, 집집마다 방문할 때마다 나는 감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야고보가 언급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야고보서 1:27 참고)에 참여하는 나의 수고로 인하여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보다 풍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어린 교사 또는 제사가 된다면, 나는 가정 복음 교사의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방문하는 회원들과 보다 긴밀한 유대를 맺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하셨습니다이 사람들을 교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나의 책임을 나를 위한 풍부하고 영적인 경험으로 여길 것이며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스러운 의식에 가장 최고의 존경과 최상의 노력없이 참여하는 것은 와드 회원에 대한 경멸이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배신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25세 이상의 미혼 남성이라면, 나는 이미 완전하게 된 여인을 찾기 보다는 완전을 향해 노력하는 여인을 찾을 것입니다. 허물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한 세기에 단 한 명의 완전한 여인이 나온다 합니다. 나는 이미 그녀를 찾았으며 그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제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아버지라면, 친절과 인내와 거짓없는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확인하여 그것을 올바르게 유지시키고 영생이 나의 운명이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수련 장로라면 나는 내 온 정성을 다 바쳐 교회 일에 봉사할 것이며 매일 복음 공부를 계속하여 나의 모든 가족이 영원히 인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활동적인 벨기세백 신권 소유자, 혹은 고등 평의원, 혹은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 혹은 감독단이라면 특히 만일 내가 알고 있는 영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무엇보다도 과거에 주어진 현명한 권고인 ‘너희가 일생 동안 세상을 얻고도 가족을 잃는다면 너희는 게으른 종이다’라는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다음 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오늘날 권능을 가지고 선포한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교성 13)

셋째,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도 마시리니,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성임하게 하였고...”(교성 27:12)

넷째, 커틀랜드에서 예언자 요셉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렸고”(교성 110:2)

신권 소유자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게으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메시지를 받았읍니다. 우리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신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이 만든 단체나 우애 단체처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간증드리노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관장님이 오늘 아침 복지 사업 모임에서 하신 훌륭한 지도자적인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헌신으로 하나가 된다면 주님의 사업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감이 우리 마음 속에 불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준비하며, 해야 할 일을 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3차 반원차 대회의 토요일밤 신권 분반 모임에서 하신 말씀.

**카**터 자매는 약간 당황했다. 오늘 아침에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집에서도 모든 일이 고의적으로 잘못되는 듯 싶더니 아침 기도회에도 늦었다. 그런데 그보다 그녀를 불안하게 한 것은 공과였다. 그 공과는 14,5세의 학생들에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내용이었다. 공과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며 수면 시간까지 즐기면서 준비했는데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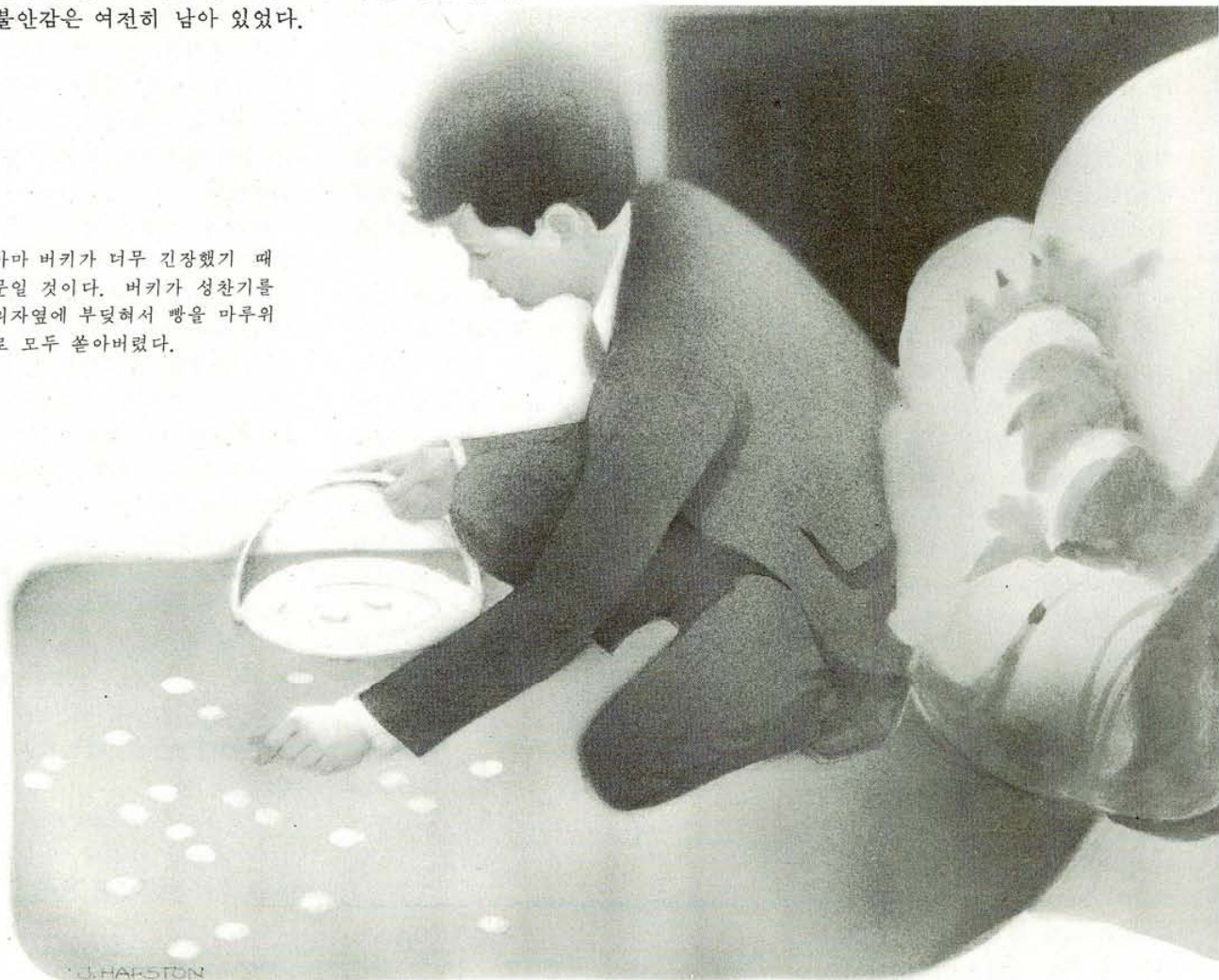
카터 자매는 학생들의 산만한 태도보다 “이 지겨운 공과를 얼마나 더 오래 들어야 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반원의 눈동자를 보게 될 것이 더욱 두려웠다. 그녀는 오늘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때때로 학생들의 눈 속에서 그들이 갑자기 무언가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을 읽곤 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다.

카터 자매는 성찬 찬송을 부를 때 교회 안에 있는 반원들을 둘러 보았다. 모두 찬송을 부르고 있었으나 두 소녀만은 저희들끼리 소근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다.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은 적이 전에는 없었다. 그녀는 노래를 그치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긴장감이 약간 풀린 것 같았으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 지극히 작은 자 “버키 스니드”

래리 케이 랭그로이스 글

아마 버키가 너무紧张했기 때문일 것이다. 버키가 성찬기름의 자열에 부딪혀서 빵을 마루위로 모두 쏟아버렸다.



J. HAKSTON

그녀는 찬송가로 눈을 돌렸다. 2절이 시작되자 가사에 주의 하려 노력하였다.

“우리에게 관용 사랑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로 하늘에 계신 주 가깝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희생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당신 앞에 가게 하고 영광 비쳐 줍소서”

찬송가 6장

그녀는 이렇게 마음으로 기원했다. ‘기도로 하늘에 계신 당신께 가게 합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다운 기독교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공과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찬 성문이 낭독되고 성스러운 상징물을 축복하는 동안 그녀는 구세주와 그의 희생에 대하여 마음을 집중하려 노력했다. 약간 마음이 평정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았다.

집사가 제 자리에 섰을 때 카터 자매는 꼬마 버키 스니드 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버키 스니드는 지난 주에 아론

신권에 성임되어 오늘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버키의 성임은 그녀의 남편 필에게 참으로 큰 기쁨을 주지 않았던가! 필은 버키가 침례를 받기 전부터 여러 해 동안 스니드 가족의 가정 복음 교사였다. 스니드 가족은 비활동 회원이었으며, 필의 꾸준한 설득력과 인내가 결국 빛을 보게 된 때는 버키가 10세 때였다.

스니드 형제가 필에게 버키를 확인해 달라고 청했을 때 필이 감격해 하던 것을 회상하는 카터 자매의 마음 속은 따뜻한 느낌과 미소가 번졌다. 이제 12세의 집사인 버키가 저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세월이 빠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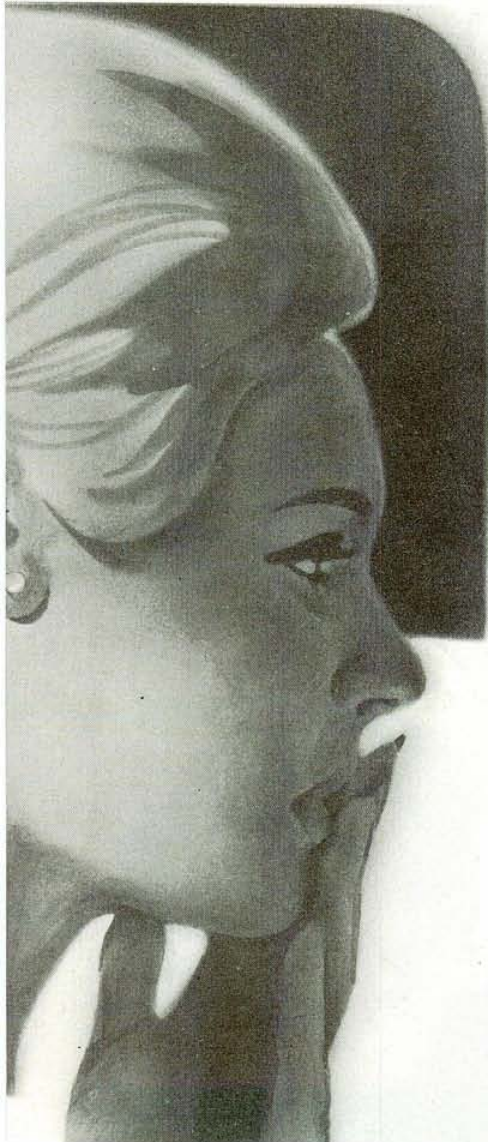
그는 다른 소년들보다 유난히 작아 보였다. 성찬기가 자기에게 올 때를 기다리면서 통로에 서 있는 버키의 이마는 긴장으로 인하여 깊게 고랑이 생겨 있었다. 그는 성찬기를 받아 다음 줄로 넘겨 전달하였다. 필이 주일학교 회장단의 일원이므로 오늘 아침은 유년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버키의 첫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필이 무척 섭섭하게 여기리라 생각했다. 필은 이제 스니드 가족의 가정 복음 교사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은 그 가족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특히 버키에게는 더했다.

그 때 일이 생겼다. 아마 버키가 너무 긴장했기 때문이리라. 버키가 성찬기를 의자 옆에 부딪쳐서, 빵을 마루 위로 모두 쏟아버렸다. 그 광경을 본 카터 자매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근처에 있던 소녀가 킁킁거리며 웃었다. 버키의 얼굴은 빨갱게 달아 올랐으며, 놀라움에 가득 찬 그의 눈은 “제발 아무나 저를 도와 주세요”라고 말하는 듯 예뻐 당을 휘둘러 보았다. 카터 자매는 그가 울지나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꼭 감고 눈물을 삼키고는 무릎을 꿇고 마루에 엎질러진 빵을 다시 줍어 모아 성찬 식탁으로 가지고 가서 다른 성찬기로 바꾸어 들고 전달하였다. 카터 자매는 안도의 숨을 몰아 쉬고는 버키가 그 상황을 그렇게 잘 처리한 것을 자랑스럽게 느꼈다.

버키는 그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성찬 전달의 임무를 끝냈다. 성찬 순서가 끝난 후 앉아 있는 버키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카터 자매는 그 일을 완전히 잊었을 것이다. 그는 의자에 깊숙히 몸을 파묻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카터 자매에게 몇년 전에 있었던, 그러나 그 아픔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일이 생각나게 했다. 그녀가 장년 주일학교에서 첫번째 말씀을 하던 때였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도와 준비시키고 연습도 시켜 주었다. 그녀는 말씀 내용을 완전하게 외웠다. 그러나 많은 회중 앞에서 당황하게 되어 말씀 내용을 모두 잊고 말았다. 카터 자매는 지금 그때 자기가 더듬거리던 것과, 자기를 지켜 보는 모든 눈동자들과 울음의 아픔만이 기억되었다. 그때 그녀는 결국 이야기의 끝도 맺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란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다시는 교회에 안올거야”란 생각 뿐이었다.

버키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년 전 주일학교 회장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무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한 말은 기억할 수 없으나, 그의 말이 너무도 부드럽고 친절했으며 그녀의



어깨에 얹은 그의 팔이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져 그녀의 아픔은 점차로 사라졌던 것만이 기억되었다.

지금 올겐이 연주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하나씩 예배당을 나가고 있다. 다른 집사들도 분반 교실로 갔다. 그러나 버키만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누가 도와 줄 것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버키가 경험한 고통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카터 자매는 교회를 둘러 보았다. ‘나 밖에 그 경험을 아는 사람이 없어 나 밖에 저 애를 도와 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도와 주나?’

카터 자매는 잠시 자기 반에 대하여 있고 일어나 교회 앞으로 다가갔다. 다가가면서 그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생각했으나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버키가 앉아 있는 의자 뒤에 섰다.

“버키야” 그녀는 말했다.

소년은 그녀를 쳐다 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다시 아래로 시선을 떨구었다.

“이제 집사가 되었구나 축하한다.”

그는 잠시 끄떡도 않고 앉아 있더니 가느다란 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역시 어색함을 느끼면서 카터 자매는 지난 주 필이 그렇게도 의기충천해 하던 모습을 생각했다. 지난 주 성찬식에서 지지받기 위하여 서 있던 소년의 모습과 비교하여 지금은 어떻게 이토록 의기소침해 보일 수 있을까!

그녀는 의자 사이로 걸어 들어가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나도 보았어. 난 네가 그 일을 그렇게 잘 처리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쳐다보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 같았으면 어쩔할 바를 몰랐을 거야. 하지만 너는 훌륭하게 했어. 정말 난 네가 자랑스럽다. 그 때는 네가 아마 신권의 영감을 받았던 모양이야. 너는 집사니까.”

슬픔의 무거운 구름이 소년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미소가 떠올랐다.

“뭘,” 앞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소년은 말했다. “저는 아무 것도 안했는걸요. 단지 빵을 쪄서 담아 가지고 가서 성찬기를 바꾼 것 뿐인걸요.”

“그게 바로 그때에 네가 해야 했던 일이었거든.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을거야.”

버키는 조용히 웃었다.

“집사로서 첫번째 의무를 그렇게 잘 한 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

“저, 처음에 제가 떨어뜨렸을 때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예요. 집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뭐.”

“난 네가 그 일을 그렇게 잘 처리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 하고 카터 자매는 말했습니다.

소년은 일어섰다. “반에 들어 가야겠어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그리고는 저만치 바빠 급히 걸어 가면서 “나중에 뵙겠어요”라고 인사말을 해 왔다.

그녀도 마음 속으로 인사말을 했다. 갑자기 그녀의 반이 생각났다. “그런데 공과가 있군! 잘 되어야 할텐데”

둘러 보니 마침 반원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예배당을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그들과 같이 나갔다. 반원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그녀의 공과는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자신을 가졌다. 공과 개요가 그녀의 머리에 다시 한 번 떠올랐다. 그러자 한 가지 생각이 또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다! 그것이 대답이다. 이 공과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청소년들은 창피의 고통을 이해할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주일학교에서 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어야겠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될거야. 문제는 우리가 항상 큰 회생을 감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재빨리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전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해 줄 것이다.”

그녀는 성구를 기억하였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경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 37-40)

그녀가 교실 문앞에 다가갔을 때 교실 문이 닫히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교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미를 띄우면서 교실로 들어섰다.

앵그로이스 형제는 로스앤젤리스 이스트 스테이크의 알함브라 와드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는 와드의 아론 신권 상향회 청남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圖



# 편집자 란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범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성도의 벗은 15개국어로 번역되어 보급되는 교회의 공식 기관입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유태교회’ 또는 ‘미국 교회’가 아닙니다. 전세계의 78개국에 펼쳐 있는 우리 회원은 17개국어로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73년 10월호 35페이지)

1972년 멕시코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백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어느 곳에나 꼭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계명은 꼭 같습니다.”

교회가 범세계적인 교회이고, 복음이 어느 곳에서나 같다면, 이와 같은 범세계적인 잡지가 단지 영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의 기사만 실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각처의 성도들을 만나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 이외의 다른 스테이크 또는 선교부에 위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을 사용하여, 본 잡지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본 잡지가 보급되는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이를 편집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히 필요합니다. 즉 (1) 본 잡지에 실리는 기사에 대해 여러분의 느끼는 점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2) 앞으로 본 잡지에 실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기사류에 관하여 제언하여 주십시오. (3) 본 잡지를 위하여 기사나 이야기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총관리 역원의 말씀은 계속 실을 것이며, 또한 영어로 된 교회 잡지에서 훌륭한 기사를 선정하여 계속 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성도들이 쓴 기사를 얻을 수 있다면, 각기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요구에 맞는 자료를 더욱 풍족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세계 각국의 성도들 간에 사상과 경험을 교환하여 간증을 나눔으로써 더욱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경험이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히 부모로서, 교사로서, 선교사로서, 지도자로서 가졌던 경험을 토대로 한 기사나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가정의 밤  
회원—선교사에 의하여 개종하게 된 동기  
회원—선교사가 되는 방법  
(십일조, 기도 등등)에 대한 나의 간증  
계보 경험  
경전이 나의 생활에 준 영향  
성탄절의 경험  
교회 회원이 된 소감

또한 우리는 영적인 감명을 줄 수 있고 복음의 원리를 행동에 옮긴 것을 나타내어 주는 소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문적인 소설가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교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높은 편집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원고는 깨끗이 정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줄 사이의 공간을 두배로 (더블 스페이스)하여 타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반드시 반환할 때 필요한 우표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한국 번역 출판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